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0 ~ 1 세 실행 자료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0 ~ 1 세
실행
자료

목차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0~1세 실행자료

1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 6

1. 어린 학습자로서 0~1세 영아 8
2. 0~1세 영아의 놀이와 배움 13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22

- 1.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내용 24
- 2.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 30
- 3.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62
- 4.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72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84

- 1.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 86
- 2. 영아와 교사가 함께 하는 일과 운영 92
- 3.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114
- 4.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128
- 5. 보육과정 평가 144



0~1세 실행자료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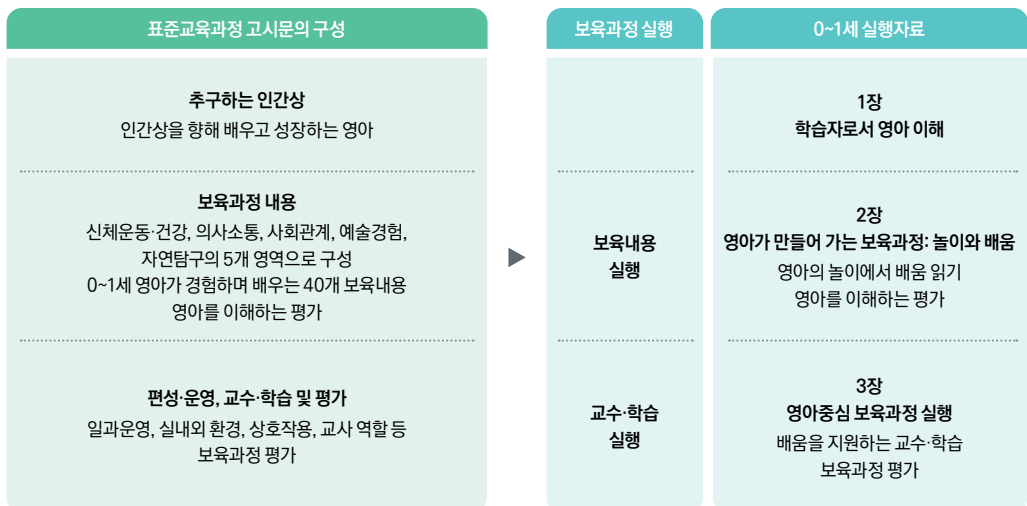
- 0~1세 실행자료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고시문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0~1세 실행자료는 「해설서」와 함께 「2세 실행자료」 및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와 연계하여,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 이 자료집은 보육내용과 교수학습의 실행이 곧 보육과정 실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육내용의 실행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0~1세 영아의 배움을 읽고, 영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실행은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를 포함한다.
- 0~1세 실행자료는 0~1세 영아의 배움을 읽고, 놀이와 배움을 함께 지원하도록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가 되도록 지원한다.





구성

- 0~1세 실행자료는 고시문의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고시문의 구성체계를 반영하여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 1장은 어린 학습자인 0~1세 영아에 대한 이해이다. 유능한 힘을 지닌 어린 학습자로서 0~1세 영아를 바라보고 영아 놀이와 배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영아중심 보육과정의 실행이 시작된다.
- 2장은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이 장에서는 0~1세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만드는 배움과 고시문의 40개 보육내용을 연계하여 살펴본다. 0~1세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경험하는 40개 내용과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을 읽는 것이 보육내용의 실행이다. 여기에서는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평가와 함께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 대해서도 다룬다.
- 3장은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이다. 이 장에는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0~1세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일과운영, 상호작용, 공간과 자료)과 보육과정 평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

1. 어린 학습자로서 0~1세 영아	8
2. 0~1세 영아의 놀이와 배움	13

1

어린 학습자로서 0~1세 영아



유능한 학습자인 0~1세 영아는
계속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성장해 간다.

1.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지닌 영아



- 영아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지니고 태어난다. 몸은 작지만 가장 열린 감각을 지닌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쾌적함이나 불편함을 예민하게 느끼며, 자신에게 좋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가는 힘이 있다.
- 생애 초기 영아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어 불편하거나, 잠을 자고 싶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를 알아차리고 울음과 웃음, 몸짓과 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힘이 있다.
- 영아는 놀이를 향한 욕구를 가지고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리며 궁금해하기도 하고, 손이 닿지 않는 놀잇감을 만져 보고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등의 신호를 보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놀이하는 힘이 있다.

울고 웃으며 신호 보내기



영아는 울음과 웃음, 다양한
얼굴 표정과 웅얼이 등으로
자신의 욕구나 불편함을 알리고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받고자 신호를 보낸다.

슬기가 교사에게 칭얼거림,
웅시하기 등으로 배고픔을 표현하자
교사는 서둘러 이유식을 준비한다.
슬기가 이유식을 먹으며 배고픔의
욕구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만족감을
표정과 웃음으로 표현한다.



2. 계속 움직이며 성장하는 영아



- 영아의 삶은 신체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영아기에는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이는 단순히 체격이 커지는 것이라기보다 모든 신체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섬세함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 영아의 열린 감각은 신체를 계속 움직이도록 한다. 누워 있을 때도 계속 팔다리를 움직이고, 성인이 미처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눈과 얼굴의 표정은 달라지며, 뒤집고 기고 앉고 걸으며 성장해 간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아가 계속 잘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이자 영아 삶의 고유한 특성이다.

뒤집고, 기고, 뺨어서 만져 보기!



매트에 누워 있던 찬이가 놀잇감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비틀어 뒤집기를 한다.



찬이가 놀잇감을 계속 바라보다가 더 가까이 가려고 몸의 방향을 바꾼다.



몸을 앞드린 찬이가 이번에는 손을 힘껏 뻗어 놀잇감을 움켜쥐려고 한다.



찬이가 호기심에 찬 표정과 눈빛으로 놀잇감을 손으로 만지고 눌러 본다.

- 영아의 움직임은 점점 커지고 많아지며 더 섬세해진다. 영아는 움직임의 크기와 힘을 조절해 가면서 주변 환경과 더 자주 다채롭게 접촉한다. 누워서 주위를 둘러보던 영아는 배밀이를 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영아에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에 주로 쾌와 불쾌의 기본 정서를 많이 표현하던 영아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도전과 실험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영아가 두려움, 신기함, 진지함 등의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며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뽀고, 들고, 벌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첫걸음을 뚝 수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

민수는 흔들다리를 건너며 자신의
다리를 조심스레 벌리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두려운 마음을
이겨 내는 성취감을 느낀다.

채아는 블록을 자신의 키보다
높이 쌓으려고 팔을 높게 뽀고
발꿈치도 들면서 움직임을
더 크고 섬세하게 조절하고 있다.

은우가 바닥에 비친 색 그림자에
직접 손을 얹어 보려고 손바닥의
힘을 조절하며 신기해한다.



영아는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주변 세상을 계속 새롭게 만나며,
때로는 즐거움, 두려움, 성취감 등의 감정을 경험하며 빠르게 성장해 간다.

3. 모든 것이 궁금한 탐색가로서 영아



- 영아의 움직임은 세상을 탐구하는 힘을 증폭시킨다. 영아는 움직임이 민첩하고 정교해지면서 세상을 향한 궁금증이 더 많아지고 깊어진다.
- 어린 영아는 눕거나 앉은 채로 손과 발, 팔과 다리, 눈동자, 목과 고개 등을 움직이며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에 호기심을 보인다. 그러다 기거나 앉으면서 주변 환경이 더욱 새롭고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직접 팔을 뻗고, 주무르고, 굴려 보고, 눌러 보며 더 다양하게 탐색해 간다.
- 영아가 걷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 놀잇감, 신선한 바깥 공기, 신기한 돌과 흙, 풀에 더 가까이 가고, 만져 보고, 냄새를 맡으며 탐색해 간다.

이건 뭐지? 저것도 궁금해!

재원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표정으로 놀잇감을 살핀다. 눈앞에 보이는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며 손으로 꼭 쥐어 만지고, 흔들어 보고, 단추를 눌러 조작하고, 소리를 들으며 흥미로운 놀잇감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탐색한다.



걷기 시작한 기호가 창문에 붙어있는 놀잇감을 만지고, 누르고, 잡아당기며 탐색한다. 일어서고 걷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기호는 점점 더 알고 싶고 탐색하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산책이나 바깥 놀이에서 만나는 흙, 돌멩이, 씨앗, 풀잎, 나뭇가지, 곤충, 바람 등 많은 것이 궁금한 수진이는 모든 것을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며 활발히 탐색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0~1세 영아



2

0~1세 영아의 놀이와 배움



영아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놀이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 맺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배워나간다.

1.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들어 가며 배움



-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배운다. 특히 0~1세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 놀이하며 배운다는 특성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자, 그릇, 이불, 수건뿐만 아니라, 흙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씨앗, 나뭇가지, 돌멩이도 영아에게는 재미난 놀잇감이 되기도 한다. 즉, 영아는 주변의 사람, 사물, 자연 등 모든 것을 놀잇감으로 만들어가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이하며 배운다.

이렇게 들어가서 흔들어 봐야지!



교실에서 돌아다니던 수아가 바닥에 놓여 있던 정리 바구니에 관심을 갖고 다가간다. 수아와 바구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일 흔히 볼 수 있는 정리 바구니가 갑자기 수아의 놀잇감이 되어 배처럼 움직인다.

몸과 감각으로 매 순간 실험하고, 도전하고, 탐색하며 배움을 주도하는 영아

수아가 정리 바구니를 놀잇감으로 바꾸어 배처럼 타려고 천천히 자신의 몸을 바구니에 넣어 보기 시작한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구부려 보고, 몸을 기울여 보고, 한 발을 먼저 넣어서 바구니가 자신의 몸 전체를 받아 주며 버티는지를 감각적으로 알아본다. 드디어 몸 전체가 바구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안정감을 느낀 수아는 바구니를 손으로 잡고 앞으로 흔들어 본다. 단단하면서도 말랑한 바구니는 수아가 몸에 힘을 가하는 대로 이리저리 휘어지고 움직인다. 이 같은 바구니의 물질적 특성은 수아의 몸과 만나는 짧은 순간 더 큰 배움으로 이어진다.

- 일상의 짧은 순간에 나타난 영아의 경험을 1초, 1초... 깊이 들여다보며 배움 발견하기

영아의 아주 짧지만 큰 배움의 순간



영아의 아주 짧지만 큰 배움의 순간



- 위와 같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영아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영아는 주변의 모든 사물을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대하며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아의 실험과 도전을 통해 정리 바구니는 몸이 쏙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놀이터이자, 유연하면서도 탄력이 있어 영아가 쉽게 움직여 볼 수 있는 놀잇감이 된다.
- 바구니를 탐색하는 매 순간이 영아에게는 놀이이고 배움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아는 짧은 순간의 탐색으로 자신의 몸과 바구니의 특성, 공간과의 관계, 몸의 균형, 힘의 조절, 몰입, 성취감, 즐거움, 물질과 관계 맺기 등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
- 이렇게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놀이로 바꾸는 힘을 지닌 영아의 배움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찾아볼 수 있다.

- 주변의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환경도 영아에게는 배움의 순간으로 계속 이어진다. 바구니, 교사의 머리카락, 국수 가락, 개수대의 물, 안전 거울, 나뭇잎 등 영아가 만난 주변 환경이 모두 재미있는 놀이 자료로 탈바꿈하는 모습은 종종 교사의 예측을 뛰어넘는 듯하다.
-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는 매 순간 서로 영향을 주며 계속 이어진다. 영아의 놀이는 종종 짧게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과 놀이는 늘 이어지며 흘러가고 있다. 매일 등원하며 마주하는 사람, 사물, 공간, 자연 등과 함께 일상생활과 놀이는 얹히고설킨 순간들로 이어지며, 그 속에서 영아는 늘 배우며 성장해 간다.

모든 것이 놀이가 되는 즐거운 세상!



영아는 매일 마주치는 소소한 일상 속 모든 것을 놀이의 자료이자 배움의 순간으로 맞이한다.
유능한 학습자인 영아는 일상생활을 놀이로, 놀이를 일상생활로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세상을 배운다.

2. 섬세한 감각으로 민감하게 배움



- 영아는 온몸의 섬세한 감각으로 민감하게 배운다. 태어나 영아가 처음 마주하는 세상은 색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 등 다양한 감각적 자극으로 가득하다. 이 경이로운 세상에서 영아는 끊임없이 탐색하고 배우려는 욕구를 지닌다.
- 영아의 섬세한 감각은 주변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민감함으로도 나타난다. 영아는 자신의 섬세한 감각으로 친절한 목소리와 화가 난 목소리를 구별하고 돌봄의 따뜻한 손길과 표정을 살피며 배움을 넓혀 간다.
- 영아의 감각은 때로는 영민하기도 하다. 아주 어린 영아도 맛과 냄새를 섬세하게 구분해 내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만의 취향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영아는 오감 이외에도 아주 작고 미세한 근육, 피부, 세포 등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며 매우 섬세한 감각으로 민감하게 세상과 소통하기도 한다.

끈적끈적~ 미끌미끌~



물풀로 종이를 붙이며 놀이하는 상현이.
한쪽 손바닥에 풀이 묻자 손가락으로 콕콕 눌러 보고
다른 손바닥으로 쓰윽 문질러도 본다.

끈적끈적~ 미끌미끌~ 보드랍기도 하고, 끈적거리고
물컹거리는 듯한 여러 가지 느낌...

상현이가 손을 계속 응시하면서 자기 감각에
집중하고 때로는 손가락들로, 때로는 손바닥 전체로
비비고, 문지르고, 누르고, 두드리고, 움켜쥐고,
손을 뺐다 붙였다 계속 꼼지락거린다. 상현이는 이렇게
온 감각으로 물질과 섬세하게 얹히고설키면서
물질을 민감하게 알아 간다.

- 영아의 주변은 온통 궁금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영아는 자신의 섬세한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특징이 있다.
- 영아의 섬세한 감각은 놀 탐색과 놀이로 이어진다. 영아가 사물이나 사람, 자연 등을 알고자 할 때 응시하기, 만지기, 두드리기, 던지기, 소리 듣기, 물기, 빨기, 맛보기 등의 다양한 탐색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영아의 감각적 탐색은 민감한 배움의 과정이 된다. 예를 들어,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놀잇감이나 물건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두드릴 때 세기와 강도, 음색 등의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응시하고, 탐색 하며 배운다.
- 영아의 섬세한 감각은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 내며 자신이 주도하는 배움을 만들어 가는 유능함으로 이어진다. 작은 움직임과 미세한 미세한 소리와 감촉 등을 포착함으로써 궁금증이 생기며, 직접 만지고, 들어 보고, 냄새 맡으면서 자신만의 배움을 주도해 간다.

쓰다듬고 주물럭거리고~ 신기해! 신기해!



바깥 놀이터에서 주워 온 평소에 보기 힘든 커다란 나뭇잎의 표면을 만지며, 자신의 손바닥보다 크고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 본다.
손바닥으로도 만져 보고, 손등으로도 만져 본다.
영아는 온 감각으로 나뭇잎의 질감, 온도, 자신의 손 모양, 기분 등을 섬세하게 탐색하며 배운다.



거품 물감은 비누 거품과는 달리 색을 가지고 있다.
손으로 만져 본 거품은 눈에 보이지만 곧 사라지고
손뿐만 아니라 발로도 새롭게 느껴 본다.
또한 손과 발에 듬뿍 묻은 거품 물감은 찌걱찌걱
소리를 내고, 미끈거리면서도
부드럽다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



3.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으며 배움



- 영아는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사물, 공간, 시간, 자연과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배운다.
-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접촉하며 다양하게 관계를 넓혀 가는데, 영아가 만들어 가는 관계는 자신의 움직임, 관심, 배움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경험하게 한다. 주변 세계를 향한 영아의 관심은 월령이 높아지면서 더욱 복잡해지며, 영아 자신도 그러한 관계의 일부로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같이 해~ 같이 해!

영아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만나고 수없이 관계 맺으며 배워 간다. 영아가 기고, 서고, 걷고, 뛸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물체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으며, 또래나 주위 사람들과 좀 더 확장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 세상을 향한 관심은 모든 영아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특성이며, 관계 형성에 대한 영아의 욕구와 능력은 몸짓, 소리, 시선 등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나도 있고~ 옆에 너도 있고~



영아는 혼자 놀이하더라도 또래를 바라보거나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 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기 원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 간다.

함께 놀이하니 더 즐거워~



영아의 또래 관계는 다른 영아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움직이며 시작된다. 영아들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놀잇감을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놀이한다.

영아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감각과 움직임으로 탐색한다. 다가가기, 손 뻗기, 만지기 등의 사회적 몸짓에서 함께 놀이하기로 나아가며 또래와 관계 맺는다.



영아는 또래와 함께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서로를 모방하는 놀이 등을 하며 더 넓게 세상과 접촉하며 관계 속에서 배운다.

- 영아는 성인에게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얻는다. 특히, 영아가 양육자나 교사와 맺는 긍정적인 관계는 이후 또래나 다른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영아는 신뢰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며, 점차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

우리 모두 같이 놀아야지!



성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는 영아가 세상을 발견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영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때 주변에 대한 탐험과 배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

세상은 신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1.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내용	24
2.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	30
3.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62
4.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72

1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내용



영아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보육내용을 만들어가며 배운다.

1. 영아는 5개 영역을 직접 경험하며 보육내용을 만들어 감



- 0~1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경험하는 5개 영역 40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과정의 40개 내용이 국가 수준에서 보육과정의 공통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영아는 이를 직접 경험하며 다양하게 배운다는 점에서 보육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 보육과정의 내용을 영아가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은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의 맥락에 따라 40개 보육내용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자신만의 배움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연탐구에서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을 영아는 실제로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하며 구체적으로 배운다.

내가 직접 해 봐야 되는 거야~



현정이는 그림책을 보고 까꿍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시 나타날 것'을 기대하거나 '있고 없음'에 흥미를 보이며,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

은지, 아영이, 경민이는 종이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따라 끼적여 보며 즐거워하다가, 그림 속 손가락을 차례로 짚으며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의 내용을 경험하고 있다. 자신의 손가락과 그림의 손가락 수를 하나씩 짝 지어 보는 시도를 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에서 수에 관심 가지기를 배우고 있다.



신기해! 직접 만져 보니 느낄 수 있어!



비가 갠 후 바깥 놀이터에 나갔다가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는 빗물이 묻은 낮은 탁자 위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 본다. 지훈이가 처음에는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물방울을 만지면서 밀어 보다가 물방울이 손끝에 닿아 이리저리 뭉쳤다 흩어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다. 지훈이는 투명하고 모양이 계속 바뀌며 움직이는 물방울에 마음이 끌리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 모습은 지훈이가 고유하게 체험하고 느끼는 순간이며, 지훈이가 만들어 가는 자신만의 보육과정의 내용이기도 하다.

- 지훈이는 빗물이 묻은 탁자 위에서 물방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 보며, 보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내용인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와 예술경험의 내용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2.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를 넘나들며 보육내용을 만들어 감



-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를 넘나들며 모든 순간 배우고 성장한다. 학습자로서 영아는 먹고, 자고, 씻고, 배변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간식 그릇, 낮잠 이불, 기저귀 등 모든 물건을 놀이하듯 만지고 느끼며 배운다.

먹고, 만지고, 놀고, 자고!



은교는 이유식을 먹으면서 모빌을 쳐다보고, 간식을 먹은 후에는 그릇을 만지작거린다.
놀이 모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동시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리듬이 있는 음악 소리에
관심을 가지며, 졸리면 교사의 토닥거리는 손길에 잠이 든다. 이렇게 일상생활과 놀이를 넘나들며 배우는
영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유한 경험을 하며 보육내용을 만들어 간다.

- 영아는 40개 보육내용을 별도의 활동으로 배우기보다는 일상생활과 놀이를 오가며 모든 순간에 배우고 자신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간다.
-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영아는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하루를 늘 새롭게 놀이하며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매 순간 적극적으로 배우며 자기만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는 영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모든 영아와 교사가 함께 우리 반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감



- 영아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경험으로 자기만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나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우리 반만의 고유한 보육내용을 함께 만들어 가기도 한다.
- 영아가 만나는 주변 환경에는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 반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래, 교사는 서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영아들은 같이 놀이지 않아도 함께 앉아 있기를 좋아하고, 또래의 놀이를 바라보며 관심을 가진다.

모든 영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

같은 책을 보아도 0세 영아, 1세 영아, 교사의 경험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함께 모여 책을 보는 경험은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배움으로 나타난다.

우리 반의 모든 영아, 교사, 놀잇감, 환경 등은 함께 어우러지며 우리 반의 고유한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 모든 영아와 교사는 일과를 보내며 우연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교사가 계획한 놀이에 영아가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는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우리반의 고유한 보육내용을 함께 만들어 간다.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놀이하는 거야~



교사는 바닥에 굵적이기를 하며 꾸미고 있는
영아들의 머리 위로 색종이 조각을 뿌려 주며
“우와, 예쁘다! 우리 현준이 머리카락이 예쁘게 꾸며졌네?”
라고 말한다. 이때 교사의 등 뒤에 꼭 안겨 있던 진우는
가만히 친구들의 놀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크레파스를 들고
다른 교사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꾸미는 흥미를 낸다.

진우의 표정과 몸짓, 행동은 다른 영아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바닥의 종이에 굵적이기를 하던
나희와 민선이는 크레파스를 들고 함께
교사에게 다가가 머리카락 꾸미기를 한다.



- 교사 또한 우리 반의 구성원으로서 영아와 함께 보육내용을 만들어 갈 때 교사의 눈빛, 표정, 말투, 움직임 등 모든 것이 영아가 경험하며 배우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개별 영아의 다양한 경험은 단순히 합쳐지고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며 또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영아, 교사, 놀이 자료, 놀이 공간, 놀이 시간 등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 우리 반의 고유한 보육과정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영아의 배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배움의 흔적들



2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



배움 읽기는 영아의 놀이에서 경험을 배움으로 연결하여
보육과정 실행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확장해 가는 교사의 노력이다.

1. 배움 읽기의 의미



- ‘배움 읽기’는 영아가 경험해야 하는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영아의 배움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인 동시에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내용을 존중하여 보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해 가는 교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에 기반하여 이해하면 아래와 같다.

보육과정 고시문과 해설서로 배움 읽기의 의미 이해하기

고시문	해설서
[구성의 중점] 라. 영아가 경험 해야 할 내용 으로 구성한다.	0~1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의 40개 내용 , 2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의 42개 내용 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아가 자연스럽게 놀이 하며 배우 는 경험 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나. 영아가 놀이 를 통해 배우 도록 한다.	보육과정에서는 영아가 놀이 를 통해 경험 하는 배움 을 5개 영역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수·학습] 마. 5개 영역의 내용 이 통합 적으로 영아의 경험 과 연계되도록 한다.	영아의 놀이 에서 각 영역의 내용 이 자연스럽게 통합 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영아가 놀이 하며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배움과 관련된 핵심 내용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보육내용은 0~1세 영아가 경험하는 40개 내용 및 2세 영아가 경험하는 42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영아는 놀이(일상생활 포함)를 통해 보육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배운다.

배움 읽기

배움 읽기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0~2세 영아의 통합적 경험을 보육내용과 연결하여 배움으로 읽고 기록함으로써, 보육과정의 5개 영역이 실행되는 방식과 영아의 배움을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 배움 읽기를 이해하려면 보육과정 고시문과 해설서를 살펴봐야 한다. 고시문과 해설서에는 ‘영아의 경험, 놀이, 배움, 5개 영역의 내용, 통합’ 등 배움 읽기와 관련되는 주요 용어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를 서로 연관 지어 살펴보면, 배움 읽기가 보육과정 실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보육과정 구성의 중점 ‘라’ 항을 살펴보면, 보육과정은 영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0~1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 40개 내용, 2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 42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영아가 경험하며 배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영아가 주도적으로 5개 영역을 경험하며 배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교수·학습 ‘나’ 항에서는 영아가 놀이에서 배우며, 이를 5개 영역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로써 경험, 놀이, 5개 영역, 배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수·학습 ‘마’ 항에서는 영아의 경험이 5개 영역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5개 영역의 내용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경험 속에 보육과정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배움을 읽어 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종합하면, 보육과정 고시문과 해설서에 나타나는 영아의 ‘경험, 배움, 놀이, 내용, 통합’이라는 주요 용어는 모두 배움 읽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영아가 놀이를 통해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배움 읽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배움 읽기로 교사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배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영아는 일상 생활과 놀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배우는데, 이러한 배움은 아주 짧은 순간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아의 경험을 주목하고 보육내용과 연결하여 영아의 배움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배움 읽기는 교사가 영아의 놀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놀이에서 ‘배움’에 조금 더 주목하여 보육과정 실행력을 명확히 하도록 돕는다. 교사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의 경험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아의 배움을 포함하는 기록으로 나아가 5개 영역의 내용이 영아중심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2. 배움 읽기의 과정



- 배움 읽기의 과정은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영아의 배움은 일상생활과 놀이 속 다양한 경험의 맥락에서 일어나므로 배움 읽기의 과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보육과정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예시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움 읽기의 과정

■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 배움 읽기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 0~1세 보육과정 5개 영역 40개 내용 중 두드러지는 것을 찾아 영아의 경험과 연결해 본다.

■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 영아의 경험과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을 함께 연결하여 적어 본다.
- 이때 영아의 경험 속에서 40개 내용의 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함께 적는다.
- 영아의 경험이 40개 내용을 만나 배움이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움 읽기를 한다.

배움 읽기 예시

영아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지호는 등원을 할 때도 판다 인형을 먼저 찾고, 종이 상자 안에 누워서 인형으로 놀이하거나 낮잠을 잘 때 인형을 꼭 안고 이불을 덮어 준다.



영아의 경험을 보육과정의 내용에서 찾아보면, 지호의 경험은 교실에서 판다 인형에 ‘안전적인 애착을 형성한다’의 내용,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애착 인형과 함께하며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의 내용, 인형을 통해 ‘모방하기를 즐긴다’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호는 등원할 때 항상 판다 인형을 먼저 찾아 안으며(경험) 특정한 놀잇감과 **안전적인 애착을 형성하고(내용)**,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이불 위에 인형과 함께 누워 보며(경험) 스스로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내용)**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 → 배움 읽기] 또한 [지호는 낮잠을 잘 때 아기를 돌보듯이 인형에게 이불을 덮어 주거나 놀이할 때 손가락으로 밥을 먹여 주는 등(경험)과 같이 주변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 **모방하기를 즐기고 있다(내용)**. → 배움 읽기]

배움 읽기 과정: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 배움 읽기는 먼저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에서 시작된다.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는 늘 반복되고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아의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도 큰 배움이 나타난다. 평범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아의 경험일지라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보면, 교사는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영아가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애착 인형을 안고 놀이하는 모습은 교사의 시선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평범한 순간일 수 있다. 하지만 영아의 경험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영아가 인형에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영아의 모습이다.

- ‘귀 기울이기’란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서 의미 있는 영아의 모습, 행동, 상황,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교사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교사가 기존의 고정된 생각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영아의 모습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 교사가 열린 마음으로 영아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면, 평소에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사는 영아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고유한 배움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영아의 경험은 모든 배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며, 영아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보육과정을 실행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배움 읽기로 이어진다.

배움 읽기 과정: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 영아의 경험을 배움으로 읽어 가려면 보육과정의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여기서 '내용'이란 '0~1세 보육과정 40개 내용'이며, 영아가 보육과정으로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내용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을 찾아보기'란 영아의 경험을 배움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두드러지는 내용'이란 교사가 0~1세 보육과정 40개 내용 중에서 영아의 경험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적절한 내용을 찾는 것을 뜻한다. 영아의 경험과 내용을 연결하여 두드러지는 내용을 찾는 과정은 맥락에 따라 교사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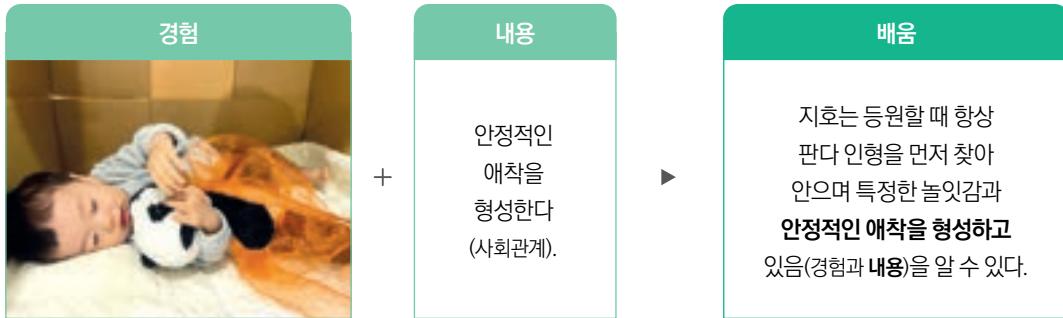
0~1세 보육과정 5개 영역을 한눈에 보며 두드러지는 내용 찾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지호는 등원할 때 항상 판다 인형을 먼저 찾아 안으며(경험) 특정한 놀잇감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내용) ,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이불 위에 인형과 함께 누워 보며(경험) 스스로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내용)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 → 배움 읽기] 또한 [지호는 낮잠을 잘 때 아기 돌보듯이 인형에게 이불을 덮어 주거나 놀이할 때 손가락으로 밥을 먹여 주는 등(경험)과 같이 주변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 모방하기를 즐기고 있다(내용) . → 배움 읽기]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나의 친구와 존중하기	아름답게 보이기	탐구 과정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듣기와 말하기	나의 친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한다.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지호는 등원할 때 항상 판다 인형을 먼저 찾아 안으며(경험) 특정한 놀잇감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내용) ,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이불 위에 인형과 함께 누워 보며(경험) 스스로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내용)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 → 배움 읽기] 또한 [지호는 낮잠을 잘 때 아기 돌보듯이 인형에게 이불을 덮어 주거나 놀이할 때 손가락으로 밥을 먹여 주는 등(경험)과 같이 주변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 모방하기를 즐기고 있다(내용) . → 배움 읽기]
도움을 받아 물을 깨끗이 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도레에게 관심을 가진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음악에 관심을 가진다.	깨적어기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생활한다.	책에 관심을 가진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모방하기를 즐긴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말놀이와 이야기가 재미를 느낀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신호를 이용에 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 그림과 같이, 교사가 보육과정의 40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영아의 의미 있는 경험과 연결하여 두드러지는 내용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교사의 보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역량으로 이어진다.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역량은 5개 영역 40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영아의 배움으로 읽어 가는 능숙함을 말하며, 이는 교사가 보육내용을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해 가는 실천을 의미한다.

배움 읽기 과정: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 영아의 배움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의 경험을 보육과정의 내용으로 연결할 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에서 영아의 경험과 보육과정의 내용을 연결할 때, 40개 내용에 있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영아의 배움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영아의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배움 읽기



- 예를 들어, 지호가 등원할 때 판다 인형을 찾거나 종이 상자 안에 누워서 인형을 꼭 안고 놀이하는 경험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내용 문구를 반영하여 맥락에 따라 배움 읽기와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움 읽기에서 교사는 영아가 단순히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움에 열려 있음을 알게 되며,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의 경험과 보육내용을 연결 지으며 영아중심 보육과정이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배움 읽기 과정에서 교사는 40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때 해설서를 살펴 보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0~2세)』는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가 고시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영역의 각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영아의 경험을 다양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지호의 배움을 읽다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에서 '안정적인 애착'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면, 해설서에서 해당 내용 해설을 참고하여 배움을 읽어 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0~1세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 **안정적인 애착**이란 영아가 특정한 사람, 물건, 공간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형성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애착 대상으로서 특정한 사람이란 영아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부모나 양육자, 교사 등을 의미하며, 특정한 물건이란 영아가 낮잠이나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함을 주는 인형이나 이불, 낮선 곳에 갈 때 지니고 가는 자동차 등의 사물이나 놀잇감을 의미하며, 특정한 공간이란 가족과 함께 하는 거실, 친구와 놀이하는 반, 자기 서랍장, 자주 가는 산책길 등 영아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공간을 의미한다.
- **형성한다**는 영아가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찾고 확장시켜 나가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영아가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특정한 사람, 물건, 공간 등과 관계 맺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감을 배우는 내용이다.



해설서를 살펴보면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

지호는 등원할 때 항상 판다 인형을 먼저 찾아 안으며 특정한 놀잇감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이불 위에 인형과 함께 누워 보며 스스로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특정한 물건과 관계를 맺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일과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호의 주 애착 대상이 인형이나 이불 등의 주변 물건에 집중되는 듯하다면 **점차 교사와 또래 친구, 반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 등으로 긍정적 관계가 확장되도록** 하는 배움을 지원해야 한다.

- 해설서를 참조한 배움 읽기는 교사가 영아의 경험에서 배움의 특성을 더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영아의 배움을 확장해 가도록 돕는 교사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배움 읽기의 실제



- 배움 읽기는 영아의 경험을 보육과정의 40개 내용과 연결하며 영아의 배움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장에서는 일상생활과 놀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아들이 만들어 가는 배움을 읽는 다양한 방식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영이의 '우영이'



먹고 만져 보고
오늘도 바쁜 지은이



꼼지락꼼지락,
양말을 벗기는 손





민지와 영우의
터널 놀이



두둥,
너도 느껴져?



조심해, 밑에는
상어가 살고 있어!



너는 누구니?

먹고 만져 보며 오늘도 바쁜 지은이



이건 뭐지?

지은이는 배밀이를 시작하고
주변 환경에 관심이 더 커지며 끊임없이
만지고 탐색하며 놀이한다.

더 먹고 싶은데?

지은이는 오전 간식으로 나온 사과튀레를
맛있게 먹은 후 손으로 그릇을 야무지게 움켜쥐고
계속 만져 보고 흔들어 보면서 교사를 바라보고
“으~ 으~” 소리를 낸다.



근데 저건 뭐지?

지은이는 교사의 품에 안겨 분유를 먹으며
발을 까딱까딱, 흔들흔들하며, 주변에 있는
소서(놀이기구)의 모빌을 계속 쳐다본다.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잡아 볼까?

지은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소서에 안전하게 앉자마자
구멍에 발을 쏙 집어넣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은 후
모빌을 잡으려고 바쁘게 팔과 손을 움직인다.





귀 기울이기

지은이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지은이는 일상생활과 놀이를 늘 함께 이어가며 즐겁게 지낸다. 지은이의 일상생활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니 간식을 먹으며 다양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간식 그릇을 놀이하듯 만지작거리며 더 먹고 싶은 표정을 짓는다. 분유를 먹으면서도 두리번거리며 주변 환경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자신이 만져 보고 싶은 모빌을 응시하며 계속 놀이하고 싶은 표정과 몸짓을 만들어 낸다.



내용 찾아보기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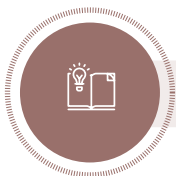
지은이의 의미 있는 경험에 주목하여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자연탐구 영역에서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에서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움 읽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지은이는 간식으로 나온 사과 꺾이를 맛있게 먹으며, 매일 먹는 분유와 맛이 다른 것을 느끼고 새로운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신체운동·건강-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간식을 먹은 후 음식이 담긴 그릇을 놀이하듯 손으로 야무지게 움켜쥐고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입에 가져다 대어 보면서 사과의 향과 간식 그릇이라는 물체의 특성을 감각으로 탐색하고 있다(자연탐구-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지은이는 간식 그릇을 흔들거나, 분유를 다 먹은 뒤에는 분유통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밀어내고는 주변의 소서에 시선을 계속 보내며 웅얼이를 하면서 모빌을 만져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의사소통-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놀이하며 자신만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 배움 읽기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영아의 일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식, 수유, 배변, 수면 등에서도 영아가 계속 감각을 사용하며 놀이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놀이와 일상생활을 넘나드는 경험을 5개 영역과 연결하며 배움을 읽어가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 놀이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0~1세의 배움 읽기는 교사가 어린 영아도 유능한 학습자로서 영아가 중심이 되는 보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처음 배움 읽기를 할 때는 영아의 경험과 내용을 함께 적으면서, 괄호 안에 '영역-내용'을 넣어보면 두드러진 배움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영이의 '우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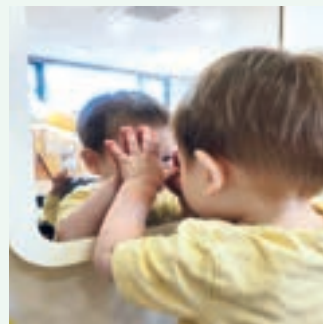
우영이는 거울과 마주친다.
거울을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
코-볼-입술-혀를
거울 표면에 대어 본다.

신기한 듯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리저리 표정을 바꾸고
춤추듯 몸을 흔들며 본다.



거울 속에 비친
친구를 바라본다.

거울 속 '우영이'와
'우영이의 교실'을 본다.





우영이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우영이의 거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주목하고, 다양한 신체를 활용하여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즐겁게 탐색해 보는 놀이 경험에 귀 기울이며 우영이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배움을 읽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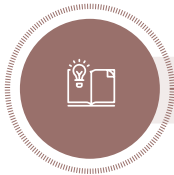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우영이의 거울 사례에서 교사는 우영이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관계 영역에서 '나의 고유함을 알아 간다', 자연탐구 영역에서 '주변환경에 호기심을 가진다', 예술경험 영역에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를 두드러지는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다. 우영이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거울이라는 사물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우영이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과 표정에 관심을 가지며 웃었다가 찡긋거리는 등 표정을 바꾸어 가며 자신이 주변 사람과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 간다(사회관계-나의 고유함을 알아 간다). 우영이는 자신이 실제로 보는 또래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거나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는 주변 환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울이라는 물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물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자연탐구-주변환경에 호기심을 가진다). 자신의 얼굴과 뺨을 거울에 갖다 대 보기도 하고, 춤을 추듯 몸을 다양하게 흔들고 특별한 동작을 만들어 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을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고 있다(예술경험-움직임으로 표현한다).



경험과 5개 영역의 두드러진 내용을 연결 지어 배움으로 이해해 본다.

- 배움 읽기는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진 내용을 찾아 영아의 경험과 연결 지어 보는 것이다.
- 영아의 경험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배움 읽기를 할 때는 5개 영역 40개 내용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내용을 찾아 통합적으로 읽어 가도록 한다.
- 배움 읽기에서 교사의 편의를 위하여 괄호 안에 '영역-내용'을 넣더라도, 영아의 경험은 항상 내용과 함께 문장 안에 함께 적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영아의 경험과 내용, 배움이 서로 연결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통합적 실행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꼼지락꼼지락, 양말을 벗기는 손

이른 아침 등원한 정우는 자신의
서랍장 앞에 자리 잡고 앉는다. 정우는 한참 동안
손을 꼼지락거리더니 양말을 벗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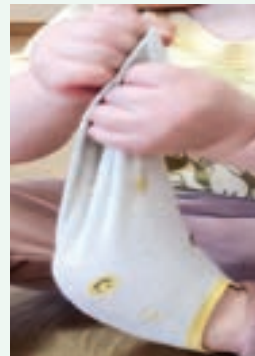
양말을 벗기는 오른손
꼼지락꼼지락, 꼬무락꼬무락
정우의 발가락이 움직인다.
정우의 손가락이 집게가 되어
양말의 끝부분을 짹 쥐고 당겨 본다.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 스스로 양말 벗기에 성공한 방법대로,
뒤꿈치의 양말목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쏙!
다시 발가락을 꼬무락거리다가 발을 들자
드디어! 오른쪽 양말이 쏙!

주먹 쥐고 힘껏 당겨!
자, 이제 왼발이 남았네?
주먹 쥐고 힘껏 당긴다. 쭈욱 쭈욱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양말이 정우는 웃기다.





정우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정우의 일상생활에서 양말을 벗기는 중요한 경험이다. 정우가 양말 벗기를 싫어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정우의 양말 벗기라는 일상적 경험에 귀 기울임으로써 정우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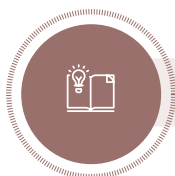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정우는 자기 반에서 자신의 서랍장과 양말과 친숙해지고 있고, 자신의 손가락과 팔 근육 등을 사용하며 양말의 특성을 알아 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내용은 사회관계 영역에서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와 '반에서 편하게 지낸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자연탐구 영역에서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등이 될 수 있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정우는 오늘도 즐겁게 등원하여 이제는 친숙해진 자신의 서랍장을 알고 찾아가(사회관계-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그 앞에 앉아 양말을 벗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반에서 편안한 하루를 지내기 시작한다(사회관계-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매일 반복되는 양말 벗기를 하며 자신의 손가락과 팔 힘을 조절하는 등 다양하게 대소근육을 움직여 조절하고(신체운동·건강-대소근육을 조절한다), 당기면 늘어지고 힘을 놓으면 다시 수축되는 양말의 특성을 친숙한 물체로서 자신의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 등 감각으로 탐색하며 알아 가고 있다(자연탐구-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경험과 5개 영역의 내용을 한 문장에 담아 기술하며 영아의 배움을 이해한다.

- 배움 읽기는 영아의 경험과 내용을 적절히 섞어서 한 문장에 기술하여 영아의 배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 경험을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결 지어 볼 때 영역별로 2개 이상의 내용도 기술될 수 있는 점 또한 살피볼 수 있는데, 이는 5개 영역보다 40개 내용으로 읽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 영아의 경험에 주목하고 40개의 내용을 연결지어 구체적인 배움으로 읽어 주는 것은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 한 문장에 경험과 내용을 함께 기술해 보면서, 교사가 40개 보육내용의 구체적 어휘나 문구에 익숙해지는 것은 보육과정 실행력 향상을 의미한다.



영아의 경험과 내용을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배움 읽기

배움 읽기를 할 때

- 영아의 경험과 보육과정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배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기록에 보육과정 내용의 문구나 용어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면,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움을 읽어 갈 때

경험과 내용을 분리하여 적기	경험과 내용을 함께 적기
정우는 오늘도 즐겁게 등원하여 자신의 서랍장을 찾아 그 앞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양말 벗기를 한다. 매일 양말을 벗어 보면서, 이제는 익숙하게 양말을 벗어 서랍장에 넣는다(경험). • 사회관계: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반에서 편하게 지낸다(내용). • 신체운동·건강: 대소근육을 조절한다(내용). • 자연탐구: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내용).	[정우는 오늘도 즐겁게 등원하여 매일 만나 이제는 친숙해진 자신의 서랍장을 알고 찾아가(경험과 내용)(사회관계) 그 앞에 앉아 양말을 벗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반에서 편안한 하루를 지내기 시작한다(경험과 내용)(사회관계).→ 배움 읽기] [매일 반복되는 양말 벗기를 하며 자신의 손가락과 팔 힘을 조절하는 등 다양하게 대소근육을 움직여 조절하고(경험과 내용)(신체운동·건강), 당기면 늘어지고 힘을 놓으면 다시 수축되는 양말의 특성을 친숙한 물체로서 자기 손의 촉감 등 감각으로 탐색하고 있다(경험과 내용)(자연탐구).→ 배움 읽기]
영아의 경험과 내용이 분리되어 배움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	영아의 경험이 내용과 연결되며 배움이 명확하게 나타남

양말? 양말! 달라요? 달라!



- 매일매일 양말을 벗는 영아들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배움을 읽어 볼 수 있다. 어떤 영아는 양말을 쏙 뺏겨 내며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알고 능숙하게 다루며 부딪힘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영아는 또래와 함께 양말을 벗으며 또래에 관심을 갖고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 5개 영역으로 배움을 읽을 때, 이처럼 같은 양말 벗기에서도 영아의 경험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아의 경험과 보육과정의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기술하여 구체적인 맥락에서 영아의 배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영아의 경험과 5개 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기술함으로써...

-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명확히 기록으로 드러나게 된다.
- 5개 영역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경험에서 배움으로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교사는 배움 읽기에서 5개 영역으로 읽기보다, 40개 내용으로 연결하여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영아가 주도적으로 배움을 생성하고 자신만의 보육과정을 실행해 가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 보육과정 40개 내용이 영아가 경험하는 내용이며, 이는 영아가 놀이에서 배우는 내용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력 향상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두둥, 너도 느껴져?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 여느 때처럼
클래식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다.

친구들이 아직 많이 도착하지 않은
이른 아침에 등원한 서영이는
한가롭게 교실 이곳저곳을
선생님과 함께 걸어 다닌다.

스피커 앞쪽에 멈춰 서서
종이 벽돌 블록을 만지작거리다,
불현듯 스피커를 가만히 응시한다.
서영이는 갑자기 자신의 귀를
가만히 스피커 앞에 대어 본다.
무언가 골똘히 집중하는 듯
서영이의 눈동자는 하늘을 향하고,
그렇게 한참을 스피커에 귀를 갖다 대고서
음악에 집중하는 듯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우도 서영이 옆에
다가가서 가만히 자신의 귀를 대어 본다.

둘은 얼굴을 마주 보며 웃는다.

서영이와 지우는 한참을
귀를 갖다 대고서 음악과 진동을
경험하고, 얼굴을 또 마주 보며 웃고,
또다시 스피커에 귀와 손을
가까이 갖다 대기를 반복한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첼로의 저음은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동을 만들고, 아이들은 오늘 귀가 아닌
피부로 음악을 새롭게 만난다.





서영이와 지우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서영이와 지우가 스피커 앞에서 음악 소리에 함께 주목하고, 스피커에 피부를 갖다 대며 규칙적으로 울리는 진동을 경험하고 있다. 두 영아의 놀이하는 모습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짧은 시간에 5개 영역의 내용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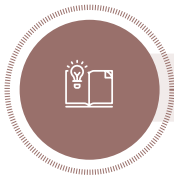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주변에서 나는 소리와 진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 소리와 리듬 등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예술경험 영역의 내용, 탐색을 하며 ‘규칙성을 경험하는’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이 골고루 나타난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서영이는 주변의 많은 소리 중에서 스피커에서 나는 리듬이 있는 소리에 마음이 끌려 가까이 다가가 들어 보며 음악이라는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예술경험). 또한 리듬이 있는 음악 소리와 달리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떨림에 흥미를 가지고 진동 소리의 규칙성을 경험하고 있다(자연탐구). 스피커에 호기심을 가지는 또래인 서영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우가 다가와 앉자, 서영이는 자신의 옆에 지우가 오도록 자리를 내어 주며 지우의 행동에도 관심을 보인다(사회관계). 서영이와 지우는 반에 늘 있는 친숙한 스피커에 얼굴을 가져다 대며 진동을 피부의 감각으로 경험하며(신체운동·건강), 지우는 “이거 봐!”라며 스피커에 귀를 대어 보는 서영이의 말과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고 같이 귀를 대고 또래가 보이는 비슷한 표정과 몸짓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인다(의사소통).



해설서를 참고하여 5개 영역의 내용을 골고루 포함하여 통합적 배움 읽기를 한다.

- 놀이의 맥락에 따라 배움 읽기는 5개 영역의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 영아의 경험이 통합적 배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읽어 보는 시도는 영아의 경험을 5개 영역의 전체 내용과 연결 지어 더 넓게 영아의 배움과 보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 또한 배움 읽기에 좀 더 익숙해지면 괄호 안에 영역만 적어 보는 것도 필요하며, 이는 교사가 내용을 별도로 괄호에 표시하지 않아도 영아의 경험과 내용을 능숙하게 잘 연결하여 보육과정 실행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 위 사례와 같이 배움 읽기를 하다가 0~1세 보육과정의 40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할 때 해설서의 내용 해설을 읽어 보면 도움이 된다.



놀이 기록에서 배움 읽기를 포함한 기록으로 나아가기

- 교사는 그동안 보육과정의 실행을 담는 문서에 놀이의 모습만 기록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일지나 계획안에 배움을 포함하여 작성해 봄으로써 보육과정의 실행력을 강화해 갈 수 있다.
- 교사는 배움 읽기를 통해 영아가 항상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되어 영아의 놀이를 이어 가거나 확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 특히 영아의 놀이는 한 번에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사는 놀이보다는 영아의 경험과 보육과정 내용에 집중하여 배움을 읽음으로써, 영아를 더 깊게 이해하고 지원 하는 보육과정 실행자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헤나와 주현이의 눈 도장 찍기



놀이 기록 (예시)

헤나는 추워지는 날씨에 두껍게 입고 온 겉옷을 정리하고, 곧장 주현이의 옆 책상 자리에 앉는다. 교사가 책상 자리에 흰색 물감과 접시, 스펀지 도장, 하늘색과 검은색 색지를 준비해 주자 헤나는 새로운 놀이 자료에 관심을 보인다. 헤나는 주현이가 교사를 따라 눈 도장을 찍어 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도장을 찍어 본다. 색지에 흰색 눈송이 도장이 찍히는 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눈! 눈!”이라고 말한다. 헤나와 주현이는 동그라미 모양과 눈송이 모양 도장을 번갈아 가며 꺾 누르거나 살짝 톡톡 찍어서 모양을 만든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만들어 낸 흰색 모양을 바라보기도 한다.

놀이에서 영아의 경험을

배움 읽기를 포함한 놀이 기록 (예시)

[주황반 아이들과 헤나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옷을 두껍게 입으며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자연탐구)** 겨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배움 읽기]

[교사가 영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눈송이를 찍어 보는 물감 놀이를 제공해 주자 헤나와 주현이는 함께 앉아 물감 도장을 찍어 보면서 서로의 그림을 살펴보기도 하며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사회관계)**. → 배움 읽기]

[동그라미 모양과 눈송이 모양 도장을 살펴 보며 살살 눌러서 흰색 물감을 찍어 보기도 하고, 꺾 눌러 보기도 하며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하고(예술경험)**, 눈송이 도장 찍기 놀이를 하면서 헤나와 주현이는 눈송이를 표현하는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의사소통)**. → 배움 읽기]

배움으로 전환해 주기

배움 읽기를 포함하는 놀이 기록으로 교사는...



- 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 영아의 특성, 배움, 성장과 변화 등 영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 교사가 보육과정 실행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영아의 놀이 흐름과 확장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 배움 읽기는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판단에 도움을 준다.

민지와 영우의 터널 놀이



누가 나올까?

스펀지 터널 통과하기를 반복하는 영우를 지켜보던 민지가 스펀지 터널 안에 고개를 쏙 밀어넣으며 들여다본다.

잔! 우리, 눈이 마주쳤네?

영우가 터널에서 고개를 내미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민지와 영우의 시선이 마주친다.



민지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을까?

영우는 민지를 지나쳐 다시 스펀지 터널을 통과하려 간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영우를 끝까지 바라본다.



민지와 영우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민지는 터널에서 영우가 나올 것을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민지가 영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잘하라고 영우를 응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우가 멋지게 터널을 나올 때, 두 영아가 보이는 행복한 얼굴의 표정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유심히 두 아이의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민지와 영우의 움직임과 표정이 평소보다 특별하게 나타나고, 두 영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민지와 영우의 놀이에서는 두 영아가 함께하며 신체활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와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는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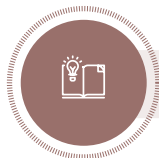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민지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영우를 바라보고 영우도 민지를 가끔 바라보며 서로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사회관계). 민지는 영우가 터널을 통과하면서 짓는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영우의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의사소통). 영우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재미있어하며 실내 신체활동을 즐기고, 스펀지 매트가 주변에 깔려 있는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신체운동·건강). 민지는 영우가 터널을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몸을 많이 기울여 터널 안을 들여다 보며 영우가 성공적으로 빨리 나오기를 응원하는 몸짓을 보내고 있고, 영우도 민지가 자신을 기다리며 격려하고 있는 시선을 느끼고 터널을 통과하여 부듯하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성취감을 느끼는 듯 하다. 민지와 영우는 서로의 특별한 몸짓과 표정을 민감하게 느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래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지와 영우의 배움 지원하기

교사는 민지와 영우가 또래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응원하도록 격려하며 '민지가 응원해주니 영우가 더 터널을 잘 통과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등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날에도 터널 놀이에 대한 흥미가 지속된다면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투명 터널을 추가로 제공하여 또래의 신체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지원해보거나, 터널을 고정하여 영아들이 안전하게 스펀지 매트에서 놀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아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배움의 의미를 읽어 본다.

- 영아의 경험은 폭넓은 배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교사는 자칫 놓치기 쉬운 영아의 표정, 행동, 관계적 특성 등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읽고 기록해 준다.
- 배움 읽기가 능숙해진 교사는 영아의 경험에 내용을 충분히 담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영역-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영아의 경험이 만드는 배움 이해하기

영아의 경험이란

- 항상 열려 있고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간다.
- 종종 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깊은 감동이나 울림, 놓치고 싶지 않은 특별한 순간이 보인다.
- 교사가 놓치지 않고 배움으로 읽어 주며,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가치 있는 배움이 있다.

이러한 경험의 특성과 보육과정 그리고 배움을 서로 연결해 보면

- 놀이중심 보육과정은 영아가 경험하는 내용을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0~1세 보육과정의 40개 내용은 영아가 경험하며 배우는 내용으로 제시하여 영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영아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며, 경험 속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배움을 만들어 간다.
- 따라서 영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 교사는 5개 영역으로 영아의 배움을 구체적으로 읽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선재와 솔이는 노랑반의 또래이다. 선재가 오름 계단 위로 올라가자, 솔이가 뒹뒹 달려와 선재를 바라 본다. 선재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솔이를 내려다보며 반가운 표정을 짓는다. 선재가 올라가는 계단 난간을 솔이가 두 손으로 잡고는 계속 친근하고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어디, 어디?”하는 소리를 내자, 선재는 올라가던 계단을 향한 관심을 솔이에게 돌리며 환한 표정과 말소리로 반응하며 즐거워한다.
- 이러한 영아의 경험을 5개 영역으로 연결해 보면 사회관계의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등으로 배움을 읽어 갈 수 있다.
- 선재와 솔이의 상호작용을 좀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보면 선재나 솔이가 오름 계단을 오를 때 둘은 종종 함께 놀이하거나, 서로의 동작을 흉내 내며 모방하여 놀이하기를 즐겨 온 경험 또한 읽어볼 수 있다.
- 교사는 계단을 올라가는 선재를 향한 솔이의 관심, 솔이를 배려하며 자신의 관심을 오히려 솔이를 향한 즐거움으로 바꾸어 가는 선재의 감정 등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중함을 영아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교사는 영아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읽음으로써,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고 자신의 보육과정 실행을 성찰하며 또 다른 실천을 이어 갈 수 있다.

너는 누구니?

유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울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곧바로 뒤집기를 하며 몸을 움직인다.

유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옹알이로 “깡깡” 소리를 내며 배밀이를 하자
교사는 유나 주변에 있던 손가락 인형을
움직여 유나의 관심을 지원한다.



유나의 신체 움직임은 이제 움직이는 인형을 향해
뚜렷하게 응시하기로 이어지며, 교사가 엄마 목소리로
“유나야, 나는 엄마야.”라며 손가락 인형을 움직이자,
유나가 배밀이를 하며 아주 조금씩 인형에게 다가온다.

“우리 유나, 인형이 궁금하구나~ 자, 유나도 만져 볼래?”

유나는 인형을 손으로 잡으려고 한참을 배밀이를 하다가
드디어 두 손으로 인형을 움켜쥔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인형이 신기하니?”

두 손으로 쥐어 든 인형이 더는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않자 이리저리 손가락과 주먹으로 조물조물거린다.

인형의 촉감이 좋은 건지, 더 깡깡대지 않고
인형을 손에서 입으로 갖다 대었다가 떼었다가
다시 쳐다보면서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옹알이를 한다.



유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유아의 자고 먹고 놀고 배변하는 일상생활 속에는 늘 모빌과 딸랑이, 기저귀, 우유가 함께 있다. 유나는 주변에 관심이 많고 쳐다보거나 웅얼거리며 만지는 것을 즐긴다. 유나의 일상생활에 귀를 기울여 볼 때 놀이와 분리되기 어려우며 아주 어린 영아도 모든 순간이 배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잠에서 깨어난 유나가 주변에 놓인 손가락 인형에 관심을 보이며 배밀이를 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대소근육을 움직인다’와 ‘기본운동을 시도한다’의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웅얼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이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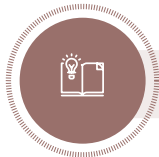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유나는 낮잠을 많이 자지만 이제 곧잘 뒤집기도 하며 주변에 관심이 가는 사물이나 소리에 팔을 뻗기도 하며 온몸의 근육을 조절해 가며 기어가고 기본운동을 시도한다. 주변의 사물을 쳐다보고 친숙한 교사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인형을 잡으려고 배밀이를 계속 이어가며 놀잇감을 계속 알고 싶은 욕구를 웅얼이로 나타내기도 한다. 유나는 손가락 인형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물입하고 있다. 유나가 인형을 잡아 보려고 힘들지만 배밀이로 기어가고 팔을 뻗기도 하면서 어린 영아이지만 꽤 지속되는 호기심과 끈기를 보여 준다. 이는 유나가 주변에 친숙한 여러 놀잇감과 사물들이 있음에도, 움직이는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의 출현을 뚫어지게 오랫동안 응시하며 인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유나가 인형을 만지거나 물고, 냄새 맡으며 온몸의 감각을 활용하여 인형이라는 물체를 끝까지 알고자 하는 끈질김, 자신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상을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유나의 배움 지원하기

유나가 배밀이로 꽤 멀리 기어가는 것을 보고 교실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더 확인하고, 움직이는 물체에 보이는 관심을 보이는 유나를 위해 움직이거나 소리 나는 놀잇감을 더 찾아서 멀찌감치 놓아 유나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또한 유나의 웅얼이에 “어~ 유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유나는 인형이 마음에 드나보구나.”와 같이 반응적 상호작용을 하여 유나가 자신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0~1세 영아의 경험의 다양한 의미를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0~1세 영아도 놀라운 물입과 도전을 한다. 교사는 어린 영아의 놀이를 보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배움을 읽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아의 경험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기록할 수 있다.
- 영아의 경험을 적을 때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보육내용 실행력을 의미하며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깊이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조심해, 밑에는 상어가 살고 있어!



재민이는 오늘도 운동화를 제일 먼저 신고, 밧줄 타기 놀이기구를 향해 달린다.
안전한 가운데 구간에서 놀이하던 재민이!

재민: (밧줄을 잡고 오르며 친구들에게 외친다. “조심해! 밑에 상어! 상어!”)

미희: 으악, 상어 100개!

재민: ㅋㅋㅋ.



미희와 이야기를 나누며 밧줄 타기 기구를 기어오르던 재민이는 안전한 가운데 구간이 아닌 끝으로 가서
밧줄을 잡지 않고 올라가기를 시도한다. 살짝살짝 미끄러지며,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교사가 재민이의 뒤에서 닿을 듯 말 듯 손을 받쳐 주며 조심하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여 보이기도 한다.
재민이는 밧줄 타기 놀이기구의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교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재민: 나 끝까지 올라갔어요!



재민이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재민이의 놀이에 귀를 기울여 보면 밧줄을 잡지 않고 오르내리기를 계속 도전하고 있다. 때로는 올라가다가 밧줄에 다시 매달리기도 했지만, 재민이는 자신의 움직이는 영역을 조금씩 늘려 간다. 1세 후반에 접어들어 점차 놀이가 다양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해 보고자 하는 것이 많아진다.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재민이의 놀이에서 내용을 찾아보면,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교사의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며 생활한다’와 연결된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또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절하게 말소리를 내기도 하고, 상어를 상상하며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고’ 있음도 알 수 있다.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재민이는 밧줄 타기 놀이기구를 오르내리며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친구들과 과 상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알아 가고 있다. 교사의 조심하자는 말을 들으면서 위험하다는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하고 있으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놀이하고 생활하는 모습도 보인다. 밧줄 놀이터에서 밧줄을 잡지 않고 오르내리기를 시도하는 재민이는 때로는 미끄러질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했다. 밧줄을 잡지 않고 위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활짝 웃으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보였다. 밧줄 타기 모험 놀이에서 재민이는 놀이를 조금 더 높은 긴장감을 갖도록 바꾸어 가며 상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어를 피해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야기를 만들고 어려운 밧줄 타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더욱 집중하며 놀이한다.



재민이의 배움 지원하기

교사는 재민이를 위하여 교실로 돌아와 상어와 관련된 동화책을 함께 읽어 보며 이제 곧 2세가 될 재민이가 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상상력을 키워 가도록 지원할 수 있고, 모험을 즐기는 재민이를 위해 “선생님이 재민이가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 훌륭하구나.” 등 구체적 언어로 격려해 줄 수 있다.



배움 읽기는 배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확장하는 지원으로 이어진다.

- 교사는 영아가 1세 후반이 되면 종종 2세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움을 지원해야 한다.
- 교사는 영아가 1년 동안에 40개 보육내용 전체를 점진적으로 모두 경험하고 항상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 배움 읽기는 별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놀이 기록이나 보육일지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배움 읽기를 놀이 기록에 활용하는 방법 (예시)

배움 읽기 과정		초록반의 놀이하며 배우는 하루	
귀 기울이기 귀 기울이며 기록하기 배움 읽기 배움 지원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와 지원하기		놀이 기록	오늘은 날씨가 포근하여 바깥 놀이 시간이 많아지자 영아들이 서툴지만 밧줄 타기 등 놀이기구에 관심이 많아졌다. 특히 재민이와 미희가 밧줄 타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항상 안전한 가운데 구간에서 놀이하던 재민이지만, 오늘은 가장자리에서 오름대를 오르거나, 손을 놓고 오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갑자기 재민이가 밧줄 타기 놀이를 하면서 아래에 상어가 산다고 이야기하자 미희와 성원이 등 몇몇 영아가 관심을 보이며 함께 도망 다니는 놀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교사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재민이는 조심하면서도 밧줄 타기 놀이기구를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기를 시도했고,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교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잘했는지 묻기도 하였다.
		영아 배움	재민이와 미희, 성원은 밧줄 타기 놀이기구를 오르내리며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신체운동·건강), 친구들과 상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놀이와 이야기의 재미를 알아 가고 있다(의사소통). 재민이는 교사의 조심하자는 말을 들으면서 위험하다는 말을 이해하고(신체운동·건강)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하고, 때로는 미끄러질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비록 밧줄을 잡지 않고는 위쪽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활짝 웃으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상어 이야기를 만들어 밧줄 타기에 더 집중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증폭시키며 주변의 격려와 칭찬 속에서 자신이 고유함을 알아 가고 있다(사회관계).
		배움 지원 및 계획	- 반으로 돌아와 상어와 관련된 동화책을 함께 읽어 보며 이제 곧 2세가 될 재민이와 초록반 영아들이 그림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상상력을 키워 가도록 지원함(놀이자료). - 모험을 즐기는 영아들이 자신의 고유함을 더 알아 가도록 “선생님이 너희가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 훌륭하구나!” 등 구체적 언어로 격려함(상호작용).



놀이와 일상생활에 항상 먼저 귀 기울이기

- 배움 읽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지만, 배움에 주목하느라 영아의 놀이를 다시 축소시키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배움을 읽으려면 다시 유능한 영아에 주목하고, 놀이와 일상생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놀이에서 영아는 무한한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곧 배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 배움 읽기를 하는 이유는 배움에 다시 주목해 보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 놀이에 대한 존중과 기록을 축소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배움 읽기에서는



놀이를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함께 필요



배움 읽기에서 놀이란

- 영아가 배움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맥락이다.
- 영아의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나는 배움의 터이다.
- 지속적인 존중과 관심, 지원이 필요한 영아의 삶과 같다.

다시 놀이에 귀 기울이기:
영아의 놀이는 배움의 원천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평가는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1. 영아 평가의 의미



-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배움 읽기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보육과정에서 평가는 ‘영아 평가’와 ‘보육과정 운영 평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시문과 해설서를 기반하여 영아 평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시문	해설서
3. 평가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영유아 평가는… 영유아의 배움이 나타나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각 영역의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여 영유아의 놀이에서 영역별 내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만 체크하기보다는 영유아가 각 영역의 내용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배움에 이르게 되는지를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 등에 비추어… 영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영유아가 행복감을 느끼고 전인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활용한다.

- 보육과정 고시문과 해설서를 살펴보면, ‘영아 평가’란 배움이 나타나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 해설서를 살펴보면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해설서에는 각 영역의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놀이에서 영역별 내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만 체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 자료집에서 새롭게 제시한 배움 읽기의 필요성과 연관되는 문구이기도 하다. 교사는 0~1세 보육과정 5개 영역의 40개 내용, 2세 보육과정 5개 영역의 42개 내용을 영아가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어떤 배움에 이르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 즉 배움 읽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또 해설서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의 특성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는 영아의 행복과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란 배움 읽기를 바탕으로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2.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 보육과정 고시문과 해설서에서 살펴봤듯이, 영아 평가는 영아의 배움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보육과정에서 평가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의 배움을 읽어 가면서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하여 영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는 배움 읽기에서 발견한 영아의 특성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영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배움 읽기와 평가가 서로 연관되면서도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배움 읽기가 지금 나타나는 영아의 배움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평가는 영아의 배움에 대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정보와 지금의 배움을 종합하여 영아의 특성과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 또 영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를 함으로써 교사는 영아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의 배움과 성장을 긴 호흡으로 지원하고 확장해 갈 수 있다. 누적된 시간 속에서 영아의 성장과 발달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와 영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이러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다.



영아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평가

- 영아 평가는 교사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의 배움을 읽어 가며 영아의 고유한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다. 영아 평가는 배움 읽기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사는 상황에 따라 평가의 시기와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특히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바라볼 때 그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영아 배움에서 드러나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특성은 영아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고, 이는 곧 영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자료가 된다.

채림이의 배변 훈련 이야기



내 기저귀는 어디에 있지? 어~ 여기 있네. 내 기저귀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공룡 그림도 있네. 이걸 채림이 기저귀야.



가영이가 토끼 변기에 앉아 있네?
나도 토끼 변기에 앉아 볼까?
같이 앉아 보니 더 재미있네.
이번에는 하람이가
변기에 앉아 있네~
"하람아, 휴지 필요해?"

선생님과 화장실에 가 볼까?
교실에 있던 변기랑 똑같네.
앉아 봐도 될까?
선생님이 물을 내려 주네.
나도 한번 해 볼까?
“휴지야~ 안녕~ 잘 가!”



- 건강한 배변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개별 영아의 기질과 신체 리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채림이는 기저귀에 그려진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공룡 그림을 보며 호기심을 키우고, 친구에게 휴지를 건네주는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변기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경험에서 건강한 배변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움 읽기와 함께 영아의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 예시

[채림이는 배변 훈련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기저귀와 변기를 친숙하게 여기며 편안하게 대한다. 친구와 함께 배변 놀이를 할 때는 변기에 앉은 친구에게 휴지가 필요함을 알고 건네주며 또래에 관심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기저귀를 갈거나, 변기에 앉은 뒤에는 손을 씻어 보며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한다. → **배움 읽기**]
[따라서 채림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규칙을 알아가기 위하여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며 잘 알고 있는 친근한 사물과 즐겁게 놀이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며 세상을 배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평가는 채림이의 배움을 읽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한 배변 습관을 들이려고 어떻게 주변과 관계 지으며 배우고 있는지 채림이의 특성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다. 즉 교사는 채림이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규칙을 친근한 사물과의 놀이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배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놀이가 이어지지 않고 끊기거나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 모두 영아 배움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등원부터 하원, 교실의 안과 밖, 교사가 계획한 놀이부터 우연히 일어나는 놀이까지, 영아의 배움은 일상생활과 놀이에 스며들어 있으며, 교사의 배움 읽기는 영아의 고유한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위에서 제시된 평가 예시와 같이 영아 평가에서는 5개 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영아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이해를 적는 것이 특징이다.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

- 매 순간 온몸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영아는 항상 변화하고 성장한다. 특히 0~1세 영아의 변화 속도는 빠르고 선명하게 보이는 특성도 있지만, 좀 더 누적된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과 변화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나타나는 영아의 의미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도 필요하다.
- 교사는 영아의 일상생활이나 놀이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기록하며, 이전과는 달리 보이는 영아의 성장과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영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로 나아갈 수 있다.

산책하며 자라는 초록반 영아들의 배움 이야기

봄

자연 속에서
더 유능해지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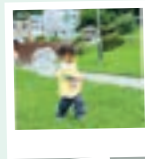


우리는 공원에서 재미있게 뛰어놀아요!
봄에 만날 수 있는 꽃과 풀을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며 궁금해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웃고 놀며 더 친해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걷기 힘들었던 친구도
조금씩 다리에 힘이 붙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여기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몸도 마음도 더 튼튼해지는 기분이에요!

여름

여름에는 더 신나게 놀아요!
비눗방울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마법 같아요.
작은 바위에 올라가며 맘을 흘리기도 하고,
풀밭에 누워서 쉬기도 해요.
나무랑 풀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열매나
벌레를 찾아내는 건 보물찾기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배워 가는
아이들



가을



시간과 함께
서로 어우러지는
아이들

가을이 되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낙엽이 바삭바삭해요!
친구랑 같이 떨어진 잎을 모으면서
“이건 무슨 모양이지?” 하며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낙엽 위에서 뛰어놀다 보면
가을 냄새가 솔솔 느껴져요.

- 영아들은 산책하는 과정에서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기 힘든 친구도 도와주며, 주변에 있는 열매나 벌레 등에도 관심이 깊어져 잘 찾아낸다. 자연과 자주 만나고 영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사는 이렇게 우리 반 영아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예시

[영아들은 산책을 하면서 다리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신체와 주변을 탐색해 나가며, 다양한 계절마다 비오는 날이나 맑은 날에 산책을 즐기며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산책을 하는 동안 걷기 힘든 친구를 도와주며 또래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산책 중 자연에서 발견한 열매, 벌레, 돌멩이, 나뭇잎 등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기를 즐긴다. → **배움 읽기**]

[영아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산책을 매주 주기적으로 하면서 점점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작은 바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신체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 가는 변화를 보인다. 또한 영아들이 자연과 자주 만나면서 많은 자연물을 찾아내고 호기심이 커지면서 탐색하기를 즐기며, 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를 다양하게 느끼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 풍부하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 **영아 평가**]

- 개별 영아를 대상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반 모든 영아를 포함하여 함께 평가할 수도 있다. 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 영아의 배움은 늘 주변의 환경과 또래, 교사 등 함께하는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영아의 성장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 과정에서 영아를 독립된 존재로 이해하기보다 늘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 배움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를 이해하는 평가

- 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제 막 세상을 배워 가는 영아에게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0~1세 영아 역시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보육과정이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향해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
- 영아도 5개 영역 40개 내용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향해 성장하는 어린 학습자이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보육과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 것이며, 이에 비추어 교사는 영아의 성장을 이해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태인리와 별희의 성장 이야기

8월

아침 등원 길에, 부모님께서 어제 태인리가 잠들기 전 울음을 터트리며, 소방대피 훈련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전해 주신다.



"무서~ 무서~"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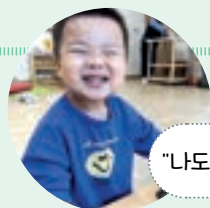
"꼭 안아줄게."



다시 돌아온 소방대피 훈련! 무서워하는 태인리에게 별희는 태인리의 애착 인형을 안겨 준다.
잠시 후 사이렌이 울렸고 아이들은 밖으로 대피했다.
별희는 태인리에게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뒤에서 꼭 안아 주었다.

10월

10월의 어느 날, 교사는 아이들에게 "불이야, 불이야!" 동화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그때 별희가 태인리 표정을 살피며 "걱정 마, 내가 지켜 줄게!"라고 말한다. 그러자 태인리는 "나도 별희 지킬 거야!"라고 말하며 웃는다.



"나도 지켜 줄게!"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영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예시

[소방대피 훈련을 하던 초록반 영아들이 또래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인다. “불이야 불이야!”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책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별희는 소방대피 훈련을 두려워하는 태인이의 마음 알고 먼저 다가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태인이 또한 별희의 위로에 답하며 몸짓, 표정,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 **배움 읽기**]

[태인이는 가끔 커다란 소리나 소방대피 훈련 같은 안전 활동에 두려움을 보이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별희와 함께하며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 내는 특성을 보이며, 건강하고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희도 태인이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어려움을 가진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영아 평가**]



- 소방대피 훈련에서 영아들이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추구하는 인간상에 비추어 읽어 본다면, 영아의 성장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로 나아갈 수 있다. 즉, 태인이와 별희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인간상을 향해 가는 두 영아의 배움의 특성과 의미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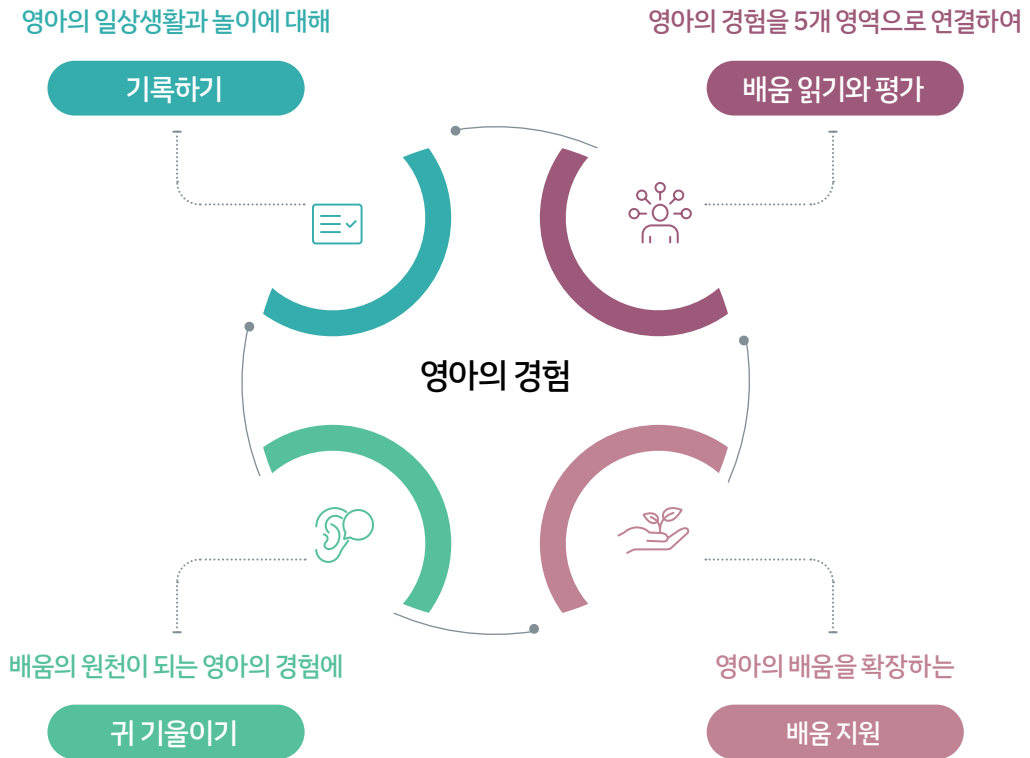
4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교사는 영아의 경험에서 배움을 읽고 지원하면서
영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 지금까지 살펴본 배움 읽기와 평가는 서로 독립되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경험하는 영아의 배움을 깊이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과 얽혀 있다.



- 교사는 영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아가 경험하며 배우는 보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가이다. 배움의 원천이 되는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기록하고, 이를 보육내용과 연결하여 배움을 읽고 평가하며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과정은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탐구하고 성장하는 교사 되어 가기로 이어진다.
- 다음 사례는 초록반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일부이다. 초록반의 모든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을 읽어가며 평가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교사의 시선으로 잠시 들여다볼 수 있다.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1. 배움의 원천이 되는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아이들은 왜 자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걸까?



아이들과 함께 2층에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걱정이 된다.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가도, 이내 손과 발로 기어가거나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놀이를 한다.
교사에게는 늘 안전이 중요한데... 나의 고민이 깊어진다.
아이들 표정과 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열심히 기어오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노력에 좀 더 자세히 귀 기울여 볼까?



힘주는 저 손끝과 발끝,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들!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2.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 대해 '기록하기'



그냥 계단을 오르기만 하는 건데도, 놀이가 된다고?



오르기와 내리기

Q. 아이들이 그냥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행위?
이것도 놀이일까? + 안전상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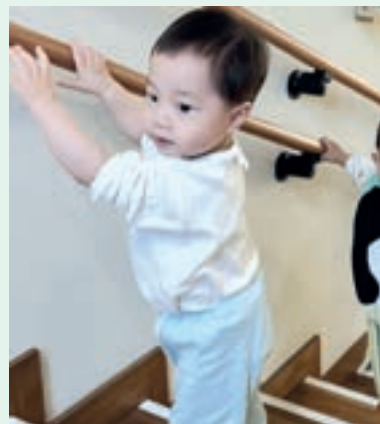
나의 추측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걷는 행위' 자체에 관심이 많음

언어적 지원

발에 힘! 발끝에 힘! 앞에 보고! 계단 보고! 봉 잡고!
밀치지 말고! 두 발로 서서! 천천히!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이들에겐 어렵지만 재미있는, 하나의 도전이자 놀이인 듯하다.



아하!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행위를 곧 놀이로 여기는구나!

3. 영아의 경험을 5개 영역과 연결하여 '배움 읽기와 평가'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스스로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도 찾아 가네?



우리 반 아이들은 오늘도 계단에서 한참을 논다.
그런데 오늘은 엉덩이로 내려오기대! 쿵! 쿵!
엉덩방아 찼으며 친구들과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 와중에 다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계단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엔 너무 평범하기도 하고
도무지 배움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순간들도 많은데...
때로는 0~1세 영아라고 보기 힘든 놀라움 힘들음
어떻게 배움으로 이해해야 할까?

교사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초록반 선생님~ 오늘 오후에 선생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오늘 아이들이 엉덩이로 계단을 내려오는 놀이를 하는데,
이 순간에 우리 초록반 아이들의 배움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때 보육과정 해설서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1세 영아반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놀이와 배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요?

좋아요! 보육과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아의 배움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저의 궁금증도 조금 풀릴 것 같아요.





배움 읽기와 함께 평가하기

[초록반 영아들은 계단을 엉덩방아로 짊어보며 다양한 방식으로 오르내리고, 조심조심 균형을 잡고 대소근육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신체운동·건강). 은서, 라윤, 지민이는 엉덩이로 내려오며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표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의사소통), 서로 속도를 맞추며 또래에게 관심을 보였다(사회관계). → **배움 읽기**]

[따라서 초록반 영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험을 통해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우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체활동 속에서 균형을 잡고 안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은 영아가 주도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각과 움직임을 조율하며, 점차 더 능동적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영아 평가**]



교사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놀이에서 배움 읽기를 해 보니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에서 배움을 우선 5개 영역과 연결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매번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영아의 배움의 특성과 성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의 전체 경로를 함께 따라 걸으며 놀이와 배움의 중요성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영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기'가 영아의 배움이 발현되는 시작이라는 점도 다시 알게 되었어요.

4. 영아의 배움을 확장하는 ‘배움 지원’



계단에서 놀이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계단에서 아이들이 계속 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반 아이들도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우리 반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매트를 깔아 주고 미끄럼틀처럼 만들어 준 적도 있어요.

아하! 오히려 놀이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건 바로 계단 미끄럼틀!

계단에 매트를 깔아서
커다란 미끄럼틀로 만들어
아이들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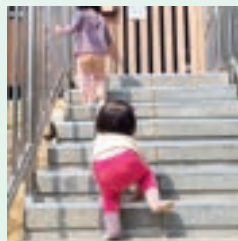
진짜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

좋아, 나도 계단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봐야겠어.





2주가 지난 지금,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놀이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안전한 교실에서 매트 언덕으로 놀이하며,
배움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아이들의 힘을 지켜보자.

아이들이 계속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바깥 놀이터에 있는 모래도 좀 더 높게 쌓아 주고
다른 계단에서도 안전하게 도전하고 실험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배움 읽기를 놀이 기록에 활용하는 방법(예시)

초록반이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 이야기 (9월 2주)



귀
기울이기



배움 읽기

놀이에서 배움 읽기

아이들은 요즘 2층에 다녀올 때마다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가도, 이내 손과 발로 빠르게 기어가거나 올라가는 놀이를 즐겼다. 이번 주는 아이들이 계단을 엉덩방아를 찢어보며 다양한 방식으로 오르내리며 조심조심 균형을 잡고 대소근육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신체운동·건강). 은서, 라윤, 지민이는 엉덩이로 내려오며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표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의사소통), 한 명이 조금 늦으면 서로 속도를 맞추어 천천히 내려오면서 또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사회관계).



다음 날 교사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조금 더 놀이할 수 있도록 스펀지 매트를 깔아주자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렸다. 지민이는 매트와 계단을 번갈아 오르내리며 매트와 계단의 서로 다른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기도 하였다(자연탐구). 또한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실내 신체놀이를 즐겼다(신체운동·건강).



교사의 지원

- 영아들이 계단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놀이하면서 도전하고, 몰입하며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힘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함.
- 유희실에서도 경사가 있는 스펀지 매트를 깔아 주고 자유롭게 온몸으로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마련함(공간과 자료).
-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들이 또래의 감정이나 행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며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시간).
- 바깥놀이터에서도 경사가 있는 모래 산에서 1세 영아들도 오르내리며 대소근육을 조절할 수 있도록 놀이에 함께 참여함(상호작용).



되돌아보기

-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은 너무 평범하기도 하고 도무지 배움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순간들도 많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즐기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에서 영아들의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이번 주 초록반 영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대소근육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 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다가 점점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전하며 놀이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친구들과 함께 엉덩이로 내려오며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교사의 지원으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공간을 탐색하는 호기심도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영아들은 신체 활동을 넘어 자신감을 키우고 협력하며 도전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영아의 배움 읽기와 평가는 교사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배움 읽기를 모든 방식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배움 읽기는 교사의 경험과 지식이 함께하는 교사의 실천 행위인 것 같아요.

저는 배움 읽기나 평가를 별도의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놀이 기록이나 보육일지, 계획안에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안심이 돼요.



그리고 보니 저도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전문성도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들과 더 의미 있는 보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이해하며 영아의 경험과 만나기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
귀 기울이며 기록해 보기



배움이 포함된
놀이 기록으로 나아가기



배움 읽기에서
배움 지원으로 나아가기



배움 읽기로 영아를
더 깊게 이해하는 평가해 보기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력, 전문성, 자신감 형성



영아는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온몸으로 알아 가고 있는 듯하다.
그래, 영아에게는 스스로 배우는 힘이 있구나!

어린 학습자인 영아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놀이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배워 나가는구나.

교사인 나 또한 그러한 영아의 놀이와 배움에 함께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구나!

영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가며 성장하고 배우는 ‘교사 되어 가기’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

1.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	86
2. 영아와 교사가 함께하는 일과 운영	92
3.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114
4.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128
5. 보육과정 평가	144

1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영아 교사



교사는 긍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영아가 놀이하며 배우도록 지원하는 보육과정 실행자이다.

교사는 영아의 고유한 배움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며 성장한다.

1. 영아와 긍정적 관계 맺기



- 교사와 영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애착을 형성하면, 영아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영아가 편안한 일과 속에서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놀이하고 배우는 토대가 된다. 교사는 영아의 신체 발달 상황 및 수면, 식사, 배변 주기 등 신체 리듬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신체적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영아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교사는 영아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맞이하며, 표정, 몸짓, 울음, 행동 등으로 소통하는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의 입장에서 마음을 살피고, 영아가 긍정적 정서를 느끼며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정서적 돌봄을 실천한다.



교사는 영아의 표정, 몸짓, 행동에서 영아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목이 마른 영아에게는 물을, 따뜻한 품이 필요한 영아에게는 교사의 품을 내어 준다.
교사의 따뜻한 품, 미소, 손길은 영아에게 안정감을 준다.

2.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 영아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려면 교사는 영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일상생활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고유한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경험하는 영아의 배움을 존중하며 지원한다. 즉, 영아에게 귀 기울여 배움을 읽고 지원한다.
- 다음은 1장에서 살펴본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와 2장에서 살펴본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을 정리한 것이다.

-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지닌 존재이다.
- 영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온 감각으로 탐색하며 세상을 알아 가는 데 유능한 가장 어린 학습자이다.
- 모든 영아는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영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은 구분되지 않는다.
- 영아에게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배움이 일어나며, 놀이가 길게 이어지거나 흘러가지 않아도 된다.

1장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

- 영아는 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며 만들어 간다.
-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보육과정 내용을 만들어 간다.
- 모든 영아는 교사와 함께 우리 반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 배움 읽기는 영아의 놀이 기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아의 배움에 주목해 봄으로써 영아가 어떻게 보육 내용을 만들어 가는지를 이해하는 주요한 과정이 된다.

2장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 교사는 영아의 놀이와 배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배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의 몸과 움직임, 사물이나 사람과 맺는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아의 배움은 짧은 탐색의 순간이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난다. 따라서 교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아의 배움을 개방적인 태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교사는 귀 기울인 내용을 바탕으로 영아의 배움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영아의 배움 읽기는 이 실행자료의 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하기: 수안이의 의자



귀 기울이기

수안이는 앞에 있는 호박에 손을 대고 엉덩이를 완전히 바닥에 붙이지는 않은 채 한쪽 다리는 세우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호박 위에 앉아 보려 한다.



배움 읽기

수안이의 놀이를 열핏 보면 호박을 끌어안고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탐색(자연탐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의 움직임이나 자세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등받이가 없는 ‘호박 의자’에 안전하게 앉으려고 자기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체 운동-건강).

- 교사는 귀 기울이기와 배움 읽기를 바탕으로 영아의 일과 운영, 상호작용, 공간과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보육과정 운영 평가로 적절하게 지원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지원 계획에 반영한다.
 - 교사는 영아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보내며 놀이할 수 있도록 일정한 흐름으로 일과를 편성 하되, 영아의 신체 리듬과 흥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사는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충분히 놀이하도록 일과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교사는 영아가 또래, 교사 등 주변 사람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영아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알아차리고 비언어적·언어적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의 시선에서 공간과 자료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아가 놀이하며 배울 수 있도록 풍부하고 도전적이며 안전한 공간과 자료를 지원한다.
 - 교사는 배움 읽기와 평가를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고 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하기: 수아와 영훈이의 도움 주고받기



수아와 영훈이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20개월 수아는 11개월 영훈이가 기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영훈이의 물컵을 찾아와서 물을 먹여 주려고 한다. 영훈이는 기어다니기를 멈추고, 물을 먹지 않은 채 교사를 쳐다본다.



배움 읽고 지원하기

수아는 친숙한 또래와 교사에게 부쩍 관심을 표현한다. 수아는 기어다니는 영훈이가 힘들어 보였는지 영훈이의 물컵을 찾아온다. 그리고 영훈이에게 물을 먹여 주려는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한다(사회관계). 영훈이는 기다가 멈추기는 했으나 수아의 관심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 망설인다. 교사는 수아가 영훈이를 도와주려는 의도를 존중하고 영훈이가 수아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영훈이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아가 들고 있는 물컵과 영훈이의 몸을 받쳐 준다. 영훈이는 교사의 미소 띤 얼굴을 보고 수아와 교사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물을 마신다. 이러한 교사의 지원으로 수아와 영훈이는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사회관계).

3. 보육과정 실행자로서 성장하기



- 교사는 영아의 배움 읽기와 지원, 평가의 과정에서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 가며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자로 성장한다.
- 교사가 영아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 반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 개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우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책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교육적 판단을 하고 실천한다.
- 교사는 영아 특성 및 변화에 대한 이해, 배움 지원 계획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성찰을 지속함으로써 교육적 판단력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원 협의, 원내·외 장학, 자율적 학습 공동체,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며 보육과정 실행을 개선할 수 있다.
-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판단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보육과정 실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보육 철학을 정립해 간다. 이로써 교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육과정을 실행하며 전문성을 향상해 나간다.



놓치기 쉬운 영아의 배움의 순간을 기록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영아의 배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 본다.
영아의 배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가 실행한 기록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며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교사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2

영아와 교사가 함께하는 일과 운영



기관의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영아가 하루를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한다.

영아의 신체 리듬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실내외 놀이를 충분히 즐기도록 지원한다.

1. 영아가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만들기



- 영아반의 일과는 크게 등·하원, 일상생활, 놀이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일과를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에 따라 운영하여 영아가 하루를 예측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과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등·하원, 일상생활, 놀이가 어우러진 일과



만남/헤어짐의 인사, 내 자리에
나의 물건(신발, 가방, 물병,
기저귀, 외투, 양말 등) 정리/챙기기



수유, 이유식, 간식, 점심식사와
양치질, 손 씻기, 낮잠 및 휴식,
기저귀 갈이 및 배변 활동, 안전교육



바깥 놀이를 포함한
충분한 실내외 놀이

- 일과를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으로 운영하되, 영아의 신체 리듬, 날씨와 계절, 흥미와 관심, 기관의 상황 및 행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계획된 일과

등원 및 실내 놀이
수유, 이유식, 간식
기저귀 갈이-배변 활동
실내 놀이
바깥 놀이
점심식사/양치질
낮잠 및 휴식
...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바깥 놀이를 햇볕이 뜨겁지 않은
등원 직후 오전으로 변경함.

기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 공원으로 놀이하러 가려고
오전 일과를 바깥 놀이
하는 것으로 변경함.

생일잔치가 있어 오전에 바깥 놀이를
운영하기 어려움. 오후에
바깥 놀이를 많이 하기로 함.

변경된 일과

등원
바깥 놀이 및 자율 간식
기저귀 갈이-배변 활동
실내 놀이
점심식사/양치질

등원 및 실내 놀이
간식
기저귀 갈이-배변 활동
바깥 놀이
점심식사/양치질

등원 및 실내 놀이
기저귀 갈이-배변 활동
행사
실내 놀이
점심식사/양치질
바깥 놀이

- 영아는 신체 리듬의 개인차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편안하게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 등·하원 시간, 낮잠 횟수와 길이, 수유 및 이유식 여부와 횟수 등에 따라 일과를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 교사는 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여 영아가 놀이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한다. 날씨를 고려하여 바깥 놀이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실내 대근육 활동으로 대체하여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일상생활과 놀이를 편안하게 즐기도록 일과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사는 실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하거나, 바깥 놀이를 하고 싶어 하거나, 비가 오는 날씨에 호기심을 보이는 등 영아의 관심과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를 반영하여 일과를 운영한다.



교사는 아침 일찍 등원하는 영아가 신체 리듬과 생리적 요구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날씨가 더워서 바깥 놀이를 오전에 일찍 시작한다.
교사는 반 출입문에 “우리는 지금 바깥 놀이터에 있어요.”라고 안내하고,
오전 간식도 바깥 놀이터에서 먹기로 한다.



영아들이 창밖에 관심을 갖고 유아반이 산책 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사물함으로 가서 산책 모자를 꺼낸다. 그 모습을 보고 교사는
“그래! 우리도 산책하러 가자.” 하고 말한 뒤 영아들과 산책을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유아반이 있는 기관에서는 교사들 간에 협의하여 다른 연령과 놀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영아들은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거나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유아반의 다양한 놀이 자료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놀이할 수 있다.
- 영아들이 유아반으로 이동하여 놀이 경험을 공유할 경우, 교사는 영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유아반 놀이 자료를 미리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 영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아가 유아반에서 유아들과 함께 물감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2. 편안한 등·하원 지원하기



- 영아가 기대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에게 기관은 가정과는 다른 낯선 환경이며 영아마다 익숙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방식이 다르므로 개별 영아의 방식을 존중한다. 기관에 어느 정도 적응된 다음에도 영아는 신체 리듬, 건강 상태, 가정 상황 등에 따라 등원할 때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지원한다.



영아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한다.



등원 시 부모가 잠시 그림책을 읽어 준다.



영아가 가정에서 지낸 이야기와 영아의 기분에 대해 교사와 부모가 대화를 나눈다.



등원 시 영아의 건강 상태와 투약 여부를 살핀다.



부모와 잘 헤어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교사는 영아가 기관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 영아가 기관에 있는 시간을 차츰 늘려 가거나 영아가 부모와 헤어질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다.
 - 영아의 개인 사진, 가족사진 또는 또래의 사진을 신발장, 개별 사물함, 벽면 등에 붙여서 기관의 공간에 친숙함을 느끼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아가 자신과 또래, 가족의 사진을 보며 친숙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낮선 환경에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영아가 점차 안정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하도록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놀이할 수 있도록 수용한다. 또한 영아가 평소 흥미 있어 하고 좋아하는 공간과 놀이 자료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영아가 애착 인형과 불안하여 가방을 벗지 않으려는 영아는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가방을 메고 놀이하도록 허용한다.



부모와 헤어진 후 오랫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영아에게 교사는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 자료를 보여 준다. 영아는 울음을 그치고 교사의 권유를 수용하여 놀이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 간다.

-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부모와 만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기관에서의 즐거웠던 경험을 영아가 부모와 공유하도록 해 준다.



교사는 기관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을 부모와 공유하며 영아가 즐겁게 하원하도록 지원한다.

3. 영아의 일상생활 지원하기



- 교사는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수유 및 이유, 간식, 점심, 손 씻기, 양치하기, 기저귀 갈이와 화장실 다녀오기, 낮잠, 휴식 등이 개별 영아의 요구에 따라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월령이 낮을수록 개별 영아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즐거운 식사와 간식 시간 지원하기

- 개별 영아의 수유 및 이유 여부, 신체 리듬, 음식에 대한 선호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지원한다.
 - 개별 영아마다 배고픈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교사는 영아의 울음, 짜증 냄, 기운 없어 보임 등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식사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 교사는 부모와 면담하여 영아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 등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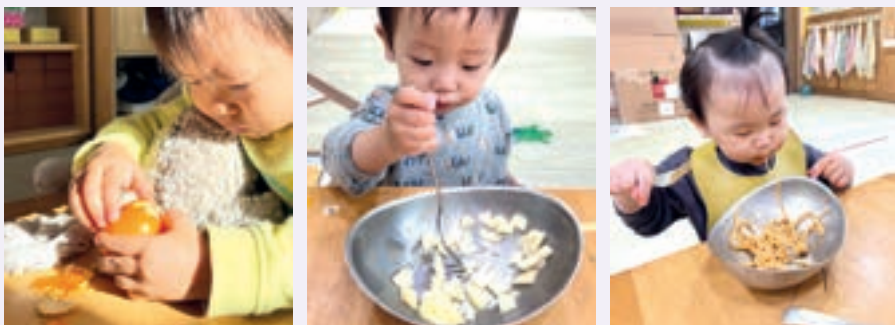
개별 영아의 수유 및 이유 여부, 신체 리듬, 음식에 대한 선호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지원한다.

- 식사와 간식 시간에 영아가 음식의 맛을 탐색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다양한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탐색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 교사는 영아가 음식의 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되 영아가 음식 먹는 방식을 존중한다. 어떤 영아는 밥을 국에 말거나 밥과 반찬을 모두 국에 말아서 먹기도 하고, 국물을 마시기도 하고, 반찬을 다 먹은 후 밥을 따로 먹기도 한다.
 - 개별 영아의 음식에 대한 선호를 존중하되, 영아가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음식의 식재료를 직접 만지고 향을 맡으며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영아가 점차 다양한 음식과 식재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 준다.



영아가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음식의 식재료를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탐색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영아가 점차 음식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영아가 식사와 간식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잘 먹도록 도와주되, 스스로 먹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해 준다.



간단하게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과일은 영아가 직접 과일의 껍질을 벗겨 보게 해 준다. 또한 영아가 음식의 모양과 색, 질감과 냄새, 맛 등을 탐색할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 영아가 음식을 흘리더라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 씹어서 삼키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다. 때로 영아들은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기도 하므로 교사는 영아가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도록 씹는 방법을 지도하며 지원한다.



영아는 숟가락을 사용하기 힘들어할 때도 있어서 손으로 음식을 먹기도 한다.
교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숟가락과 포크 사용 방법을 친절하게 반복하여 알려 준다.

- 영아와 음식의 맛과 향, 식감 등에 대해 적절한 언어로 상호작용하며 즐겁게 식사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식사와 간식 시간에 조용히 하거나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시간에 맞추어 먹도록 재촉하지 않는다.



영아는 또래, 교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한다.

느슨하고 즐거운 식사와 간식 시간



- 간식 또는 식사 시간에 영아가 하던 놀이를 멈추기 힘들어하거나 먹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영아가 이전에 하던 놀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식사 시간은 이전 놀이와 이어질 수 있어요.



교사가 양배추 찜 반찬에 관심을 가진 영아에게 양배추 찜 조리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 영아는 소꿉놀이 재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장난감 냄비 속에 달걀 놀잇감을 넣은 후 자신의 식사 자리에 놓아 두고 미소 지으며 밥을 먹는다.

영아들은 오전 실내 놀이 시간에 교사와 함께 무지개 물고기 그림책을 읽고, 무지개 물고기 놀이를 하였다.

“가온아, 숟가락으로 작은 물고기를 낚시해서 먹어 볼까?”

멸치볶음 반찬을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영아에게 교사는 식사 전 놀이와 연계하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지원할 수 있다.



- 식사 후에는 개별 영아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양치질을 지원한다.
 - 개별 영아의 월령에 따라 거즈나 칫솔로 닦아 주거나, 영아가 닦기 힘들거나 놓칠 수 있는 어금니, 헛바닥은 부분적으로 닦아 줄 수 있다. 교사가 영아들과 함께 양치질을 하며 양치물 뱉기 등을 보여 주어 올바르게 양치하는 모습을 배우도록 지원한다.
 - 양치질을 하면서 양치하는 모습과 기분을 묘사하는 “치카치카”, “반짝반짝”, “뽀득뽀득 개운해” 등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즐겁게 양치하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영아가 양치와 세수를 스스로 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존중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영아의 리듬을 반영한 휴식 및 낮잠 시간 지원하기

- 교사는 개별 영아의 신체 리듬과 생리적 욕구에 따라 휴식과 낮잠을 취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놀이 중 쉬게 해 준다.
 - 개별 영아마다 수면 요구와 낮잠 습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관찰하여 영아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금방 잠이 드는 영아, 눕거나 앉아서 이불이나 애착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는 영아, 서 있거나 돌아다니는 영아, 칭얼거리는 영아, 빨리 깨는 영아, 늦게 일어나는 영아, 깨는 것을 힘들어하는 영아 등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
 - 교사는 영아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낮잠을 자게 해 주고 낮잠 시간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에는 영아의 요구에 따라 지원한다. 잠이 깬 영아는 안아 주거나 온화한 말로 기분 좋게 일어나게 해 주고,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영아는 한쪽에서 쉬거나 조용하게 놀이하도록 해 준다.



영아는 놀이하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이 들 수도 있고, 식사를 하다가도 잠이 들 수 있다.



잠이 먼저 깬 영아가 다른 영아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놀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잠 깨기를 힘들어하는 영아는 잠을 좀 더 자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 영아는 수면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면 환경이 안전한지 점검해야 한다. 영아는 항상 바닥에 등을 대고 눕혀서 재우고, 단단하고 편평한 매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 두툼한 이불과 베개, 봉제 인형과 같은 폭신한 물체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잠자리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이불이 영아의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팔 아래로 덮어 준다. 교사는 낮잠 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고 영아가 안전하게 수면을 취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교사는 자연채광 및 실내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마련한다.
 - 영아들이 자신이 눕고 싶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거나 애착 인형이나 담요를 허용하여 영아가 안정되고 편하게 잠들도록 돕는다.
 - 조용한 음악, 자장가 또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림책을 읽어 줄 수 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수면 중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영아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쪽쪽이, 애착 인형, 애착 이불 등 애착물을 허용하여
영아가 편안하게 잠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림책을
읽어 줄 수 있다.



선생님의 품에서만 잠들 수 있는 영아 가족사진을 보며
잠이 드는 영아,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 영아도 있다. 교사는 영아의
욕구를 수용하여 영아가 편안하게 잠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건강한 배변 활동 지원하기

- 교사는 영아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배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 배변 활동은 월령, 기질 등에 따라 개별 영아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하도록 여유롭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 개별 영아마다 기저귀를 떼는 과정과 소요 기간의 차이가 크므로 영아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기저귀를 쉽게 떼는 영아가 있는 반면 기저귀 떼기를 힘들어하는 영아도 있고, 기저귀를 한 상태에서는 배변을 하지 않다가 팬티를 입으면 배변하거나, 팬티를 입다가도 기저귀를 해야만 변을 누는 영아도 있다. 개별 영아에 따라 대변 가리기와 소변 가리기의 시작과 완료 시기는 다를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편안하게 배변을 경험하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
 - 영아의 배변에 대한 신체적 신호와 표현 방식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 교사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 때 먼저 영아에게 “기저귀를 갈러 갈 거야.”와 같이 언어로 안내하여 영아가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 영아와 눈맞춤을 하며 따뜻한 신체 접촉으로 긍정적 경험이 되게 해 준다. 교사는 기저귀를 갈면서 기저귀가 젖었을 때의 불편함과 새 기저귀를 갈았을 때의 상쾌한 느낌 등을 이야기 나누며 영아를 격려한다.



영아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기저귀를 갈아 주고
교사와 영아의 개인 위생에 유의한다.



- 기저귀를 떼기 시작한 영아들이 화장실 공간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배변 활동과 관련한 놀이를 지원한다.



교사는 휴대용 아기 변기, 아기 인형, 두루마리 휴지 등 배변 및 화장실과 관련한 다양한 놀이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대변의 색과 흡사한 점토로 자유롭게 놀이하며 변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느낌을 갖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좋아하는 다양한 그림을 준비하여, 영아가 직접 색을 칠하는 등 꾸미게 해 주고, 이를 변기에 붙이는 놀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사는 기관에서 영아의 배변 경험과 놀이뿐만 아니라 배변 활동 시 칭찬과 격려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부모에게 공유하여, 가정에서도 일관적인 배변 습관이 형성되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4. 충분한 실내외 놀이 시간 지원하기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 지원

- 놀이는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일과 중 가장 길게 우선적으로 편성하되, 놀이 시간을 짧게 여러 번 제공하기 보다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길게 운영하여 영아가 충분히 놀이에 몰입하게 해 준다.
- 교사는 영아의 놀이 상황을 고려하여 실내외 놀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영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갈까?



교사가 바깥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영아들에게 점심시간임을 알리고 정리를 제안한다.
다솜이는 갑자기 미끄럼틀 아래 공간으로 가서 숨는다. 교사가 다솜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한다.

“다솜아, 바깥에서 더 놀고 싶구나.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갈까?”

다솜이는 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조금 더 바깥 놀이를 하게 해 주고,
조리실에 점심 식사가 조금 늦어짐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 교사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영아가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를 찾도록 탐색 시간을 충분히 준다.

유진이는 스스로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요.



오전 놀이 시간이다.
유진이는 선생님과 잠시 놀이하다가
수건걸이로 간다.
나란히 걸려 있는 많은 수건 중에서
자신의 수건을 찾아 만지작거린다.

주변을 잠시 둘러보다가
또래가 물병 뚜껑을 여는 모습을 바라보고
물병 뚜껑 여는 것을 도우려고 시도한다.



이후 원통 블록이 있는 곳으로 간다.
유진이가 작은 원통 블록에 큰 원통 블록을 씌우자
교사는 “쑹 들어갔네~” 하며 밝은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한다. 유진이가 교사를 보며 웃는다.



유진이는 오전 놀이 시간에 선생님과 놀거나, 자신의 수건을 만지작거리거나,
또래의 놀이를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원통 블록 놀이를 하는 등 끊임없이 움직이며 배운다.
유진이는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멈춰서 놀이를 하거나
돌아다니며 수건, 물병, 양말통 등 다양한 사물을 탐색한다.

0세 유진이는 스스로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요.



신나게 물감 놀이를 해 볼까?



태서가 등원하자마자 물감을 가리키며 관심을 표현한다.

교사는 태서의 모습을 보고 바닥에 넓은 투명 비닐을 깔 뒤 물감 놀이를 시작한다.

이후 영아들이 물감 놀이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교사는 오전 일과를 조정하여

영아들이 놀이를 마음껏 즐기도록 시간을 충분히 지원한다.

- 영아가 놀이에 몰입하다 보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들은 실내외 놀이 중 놀잇감을 던지거나, 토래와 부딪히거나, 놀잇감이나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놀잇감을 밟아 미끄러지거나 가구나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 교사는 영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는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문 모서리에 분리할 수 있는 폭신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영아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살펴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영아들이 실내외에서 밀집하여 놀이할 때 교사는 영아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살피고, 놀잇감과 놀잇감 사이를 통과할 때는 차례대로 이동하게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 중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영아와 영아 간의 거리를 적당하게 조절한다.

영아의 배움 읽기를 반영한 놀이 시간 지원

- 교사가 영아에게 놀이 시간을 충분히 지원하면 영아는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움을 만들어 간다. 교사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 놀이와 배움을 존중하여 귀 기울이고, 영아의 실제 놀이와 배움의 내용을 적합한 방식으로 기록한다. 이를 반영하여 놀이에서 영아의 배움이 확장되도록 일과를 조정하여 놀이 시간을 충분히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놀이 공간과 자료,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한다.

영아의 배움 읽기를 반영한 일과 운영: 토끼반의 봉지 놀이

토끼반의 봉지 놀이에 귀 기울인 교사는 어떻게 일과를 지원하였을까?



토끼반의 봉지 놀이에 귀 기울이기

토끼반의 한 영아가 집에서 빈 과자 봉지를 가지고 왔다. 영아들이 모여들어 봉지의 겉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고, 끼적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작은 블록을 가득 채우고 쏟아붓기를 반복하며 놀이했다.

교사는 봉지 속에 블록을 담아 손에 쥐고 다니다가 쏟기를 반복하는 영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봉지의 입구를 묶어 주었다. 다른 영아들도 교사에게 봉지를 묶어 달라고 요청하여 봉지를 묶어 주었다. 그랬더니 영아들이 봉지를 묶은 긴 줄을 끌며 놀이한다.

교사는 영아들의 놀이가 끊기지 않도록 놀이 시간을 충분히 지원하였다.



배움 읽기

배움 읽기

영아들은 봉지라는 친숙한 물체를 다양한 감각으로 탐색하기를 즐겼다(자연탐구). 영아들은 부모와 함께 마트에서 과자를 샀던 기억을 떠올리며(사회관계) 교사와 또래에게 “어머! 어머! 마뜨! 마뜨!” 하며 표정, 몸짓, 말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의사소통). 그리고 봉지에 블록을 담고 쏟는 과정에서 물체가 더해지거나 떨어지는 경험을 하며 자연스럽게 많고 적음, 안과 밖, 비닐 봉지의 모양 변화 등 물체의 다양한 특성에 관심을 가졌다(자연탐구). 봉지를 묶어서 물고기처럼 끌고 다니기를 즐겼다(예술경험).



배움 지원

배움 지원: 융통성 있고 충분한 놀이 시간 지원 계획

영아들이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넣는 것에 흥미가 많은 듯하여 물고기가 된 비닐봉지와 좀 더 재미있게 놀면서 풍부한 배움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내일 등원 후 바로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일과를 조정하고, 영아들이 충분히 놀이할 시간을 넉넉히 계획한다. 또한 어제 가지고 놀았던 과자 비닐봉지를 마치 물고기처럼 물에 띄우며 놀이할 수 있도록 간이 수영장을 준비하고 물을 미리 채워 둔다.

다음 날에 일어난 토끼반의 봉지 놀이



3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교사는 영아의 시선, 표정, 동작, 음성에서 의사 표현을 알아차리고
영아의 놀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전달하며
영아에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놀이와 배움을 지원한다.

1. 영아의 의사 표현 알아차리기



영아의 시선과 표정, 동작, 음성에 담겨 있는 의미 알기

- 영아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기, 손으로 가리키기 등의 몸짓, 미소와 같은 표정, 눈빛, 웅얼이, 울음과 같은 음성, 한두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언어 등으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요구를 표현한다. 표현된 형태는 같더라도 개별 영아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교사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은 영아가 주변에 흥미를 느끼고 탐색하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사를 교사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구니에 시선을 멈춘 영아는
바구니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바구니의 구멍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바구니 안의 놀잇감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영아가 벽면의 홈을 손가락으로 힘주어
누르는 것은 벽면의 질감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홈을 누르면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 것일까?

또래와 교사를 바라보는 영아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 또래와 교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일까?

또래의 놀잇감에 손을 뻗으며 “응” 소리를 내는
영아는 또래의 놀잇감을 가져오려는 것일까,
또래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하는 것일까?



- 영아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표현할 때 교사가 이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응답함으로써 영아는 자신의 의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영아의 의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영아가 시선, 표정, 동작, 음성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해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아의 시선, 표정, 동작, 음성은 개별 영아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영아가 관심 있게 쳐다보거나 가리키는 대상과 영아의 표정, 주변 상황 등을 살펴보고 영아의 의도를 알아차려 소통한다.
 - 예를 들어, 영아가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내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는 흥미로운 발견을 공유하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산책하려고 신발을 신은 상황에서 밖을 가리키며 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나가자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놀이터 계단에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어, 어.” 하고 소리를 내는 경우는 계단을 내려가게 도와 달라는 요청일 수 있다.
- 때때로 교사는 영아의 의사를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의 반응을 살핍으로써 자신이 영아의 의사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처음에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영아의 반응을 계속해서 관찰하며 의사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 예를 들면, 또래가 다가오니 “어, 어.” 하고 손을 흔드는 영아를 보고 교사는 ‘또래와 놀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영아가 “아니,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교사는 영아가 또래가 다가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영아가 “어어~” 하며 벌레를 손으로 가리키고 교사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교사는 영아가 가리키는 대상과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고 벌레에 대한 흥미를 공유하고 싶은 영아의 의사를 알아차린다. “응, 거기 뭐가 있지?” 하고 같이 벌레를 살펴본다.

영아가 국을 가리키며 “이거.”라고 한다. 교사가 국물을 떠 주자 영아는 고개를 젖고 다시 국을 가리키며 “이거, 이거.”라고 말한다. 교사는 영아가 가리키는 것을 자세히 보고 국에 있는 두부를 먹고 싶어 함을 알아차리게 된다. 교사는 “아~ 국에 있는 두부가 먹고 싶었구나.” 하며 두부를 건네주고 영아는 두부를 받아서 맛있게 먹는다.



2. 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하기



- 영아 교사는 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한다. 영아는 교사의 눈빛과 표정, 목소리 등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정서, 교사와의 신체 접촉에 민감하며, 이로부터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놀이하며 배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표정, 몸짓, 목소리, 신체 접촉 등 다양한 비언어적 수단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한다.
- 교사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영아를 지켜보며 기다리기도 하고, 영아와 함께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영아의 신호에 호응하여 영아 주도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거나 놀이를 함께 하고 따뜻하게 지지한다.

부드러운 시선과 표정으로 지켜보며 기다리기

- 교사가 영아에게 개입하지 않고 부드러운 시선과 표정으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은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중요한 상호작용 방식의 하나이다. 영아가 몰입하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아가 스스로 놀이하고 있거나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교사는 부드러운 시선과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며 기다림으로써 영아가 고유한 방식으로 탐색하며 배워 가는 것을 격려해 줄 수 있다.



교사가 부드러운 시선과 표정으로 지켜보니
영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퍼즐을 맞춘다.



영아들이 또래와 소통하면서 놀이하는 것을
교사가 지켜보니 더욱 활발하게 놀이한다.

영아와 함께 주의 기울이기

- 교사는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영아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교사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감으로써, 영아가 주도적으로 경험하며 배우는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영아가 수국을 가리키자 교사가 꽃송이를
영아 쪽으로 당겨 주며 함께 꽃송이를 만져 본다.

밖에서 새소리가 나자 영아가 “어.” 하고
창밖을 가리킨다. 교사가 영아를 안고
창가로 가서 영아와 함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본다.



영아가 모아 놓은 돌멩이를 가리키자
교사가 “와, 많다!”라고 하며 함께 좋아한다.

상자 안에서 놀이하고 있는 영아의 놀이를
궁금해하며 교사는 몸을 숙여 영아의
눈높이에서 함께 주의를 기울인다.



영아 주도로 상호작용하기

- 교사는 영아가 상호작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영아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교사가 영아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고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보다는 영아가 놀이하면서 교사의 눈을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리거나 놀잇감을 건넬 때 교사는 이를 지나치지 않고 맥락에 맞게 적절히 호응해야 한다. 이러한 호응에서 영아는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지지받는 경험을 한다. 또한 상호작용에서 차례 지키기와 같은 규칙, 타인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배운다.



영아가 블록으로 안경 모양을 만들어 쓰자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따라 한다.



영아가 낚시에 성공했음을 보여 주자
교사가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영아가 강아지풀을 교사에게 내밀자
교사가 풀을 건네받고 만져 본다.

놀이에 참여하며 지원하기

-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며 영아의 흥미와 관심, 호기심과 아이디어가 실제 놀이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만져 보고 싶어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물건을 가까이 당겨 주거나, 영아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지 않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사물을 잡아 주거나 놀이 상대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놀이와 탐색을 지원하는 교사의 손



두 사물을 나란히 잡아 주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영아가 안전하게 원하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잡아 준다.



영아가 모래를 부어 볼 수 있게
채를 잡아 준다.



교사가 점토의 한쪽 끝을
잡아 주자 영아가
점토를 길게 늘려 본다.

교사의 손은 영아가 멀리, 높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안아 올려 주고 당겨 준다. 놀잇감을 만져 볼 수 있도록 잡아 주며, 어떤 때는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놀이와 탐색에서 짝꿍 역할을 해 준다. 영아의 생각과 호기심이 놀이와 탐색으로 실현되게 해 주는 교사의 손은 위대하다.

- 교사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에 참여해 영아가 놀이를 시도해 보는 대상이 되어 주거나, 특정 역할을 맡거나, 놀이의 시범을 보임으로써 배움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영아에게 공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영아가 주도하는 병원놀이에 환자 역할로 참여해 영아가 체온을 재고 주사를 놓는 행동을 해 볼 수 있게 지원한다.



매트에서 뛰어내려 보고 싶어 하는 영아에게 교사는 두 팔을 벌려
“뛰어 볼래?”라고 하며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스카프를 이어서 영아와 함께
“칙칙폭폭” 하며 기차놀이를 한다.



병원 놀이를 하는 영아에게 주사를 맞은 교사가
“아야” 하며 아파하는 표정을 짓는다.

놀이와 탐색을 지원하는 교사의 손



따뜻한 신체 접촉 하기

- 교사는 신체 접촉으로 영아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어 편안하게 놀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사는 안아 주기, 토닥이기, 부드럽게 쓰다듬기, 무릎에 앉히기와 같은 신체 접촉을 통해 영아에게 기대고 안길 곳이 되어 준다. 영아는 이러한 경험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돌봄의 태도를 배운다.



교사는 우는 영아를 품에 껴안아 주며 영아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놀이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다.



교사는 영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업어 주는 등 따뜻한 신체 접촉으로 영아가 행복한 마음으로 놀이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낮잠 시간에 영아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영아가 편안하게 잠을 청하도록 돕는다.



손을 씻을 때 교사는 영아 가까이에서 도우며 상호작용한다.

3. 영아에게 적절한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 교사는 자신의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신체 접촉 등과 함께 영아가 좋아하는 말소리, 이해하기 쉬운 문장, 영아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언어로 상호작용한다. 특히 0~1세는 비언어적 소통과 언어적 소통에 민감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영아가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경험하여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한다.

영아가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소리와 문장으로 상호작용하기

- 교사는 리듬감 있는 말소리, 밝은 목소리 톤, 높낮이의 변화가 뚜렷한 억양, 부드럽고 친절할 어조로 말한다.
 - 영아는 말의 리듬에 관심을 가지며, 노래처럼 리듬감과 운율이 있는 말소리를 좋아한다. 또한 중저음보다는 다소 높고 밝은 목소리 톤을 선호하고, 높낮이가 단조로운 말소리보다는 높낮이 변화가 뚜렷한 말소리를 들을 때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교사는 감탄하기, 의사 물어보기, 영아의 행동 묘사하기 등으로 음성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말해야 한다.
 - 영아는 부드럽고 친절할 어조를 선호하며, 교사는 이제 막 언어적 상호작용을 배워 가는 영아에게 언어 사용의 본보기가 된다. 또한 교사의 부드럽고 친절할 어조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생동감을 느끼는 동시에 안정감을 느끼도록 따뜻한 어조를 사용한다.



손에 간식을 쥐고 먹고 있는 영아에게
교사는 웃으며 "맛있어? 냐냐. 많이 먹어~"라고
말한 뒤, "아~" 하며 입을 벌려 보인다.
두 영아는 간식을 먹으며 귀에 들리는 동요에 맞춰
두 발을 앞뒤로 흔든다. 영아가 동요를 듣고
손목을 앞뒤로 돌리며 흔들기 시작하자,
교사는 영아의 동작을 따라 하며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부른다.

- 교사는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짧고 단순한 문장이나 어휘를 명확한 발음으로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영아가 단어와 문장, 대화의 규칙에 흥미를 느끼고 배워 가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영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거 뭐야?”와 같이 표현과 문법을 간소화하여 질문하고, 영아에게 할 일을 알려 줄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 교사는 같은 단어를 여러 문장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여 영아가 더 쉽게 단어의 소리와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책길에서 고양이를 보았을 때 교사는 영아에게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가 걸어가네.”, “까만 고양이네.”, “우리 까만 고양이 봤지?”와 같이 같은 단어를 자주 반복하고, 조금씩 단어를 더해 가며 영아의 어휘와 문법 습득을 도울 수 있다.
- 교사의 언어 사용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배워 가는 영아에게 본보기가 되므로 어법과 상황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발음하도록 한다.

영아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 교사는 영아의 감정,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흥미와 관심, 고유한 배움의 방식 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영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사의 태도와 언어 표현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 교사는 영아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놀이 또는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언어 표현으로 격려한다. 이로써 영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이어 간다.



우는 영아에게 교사는 “약을 먹어서 서러웠구나. 선생님이 안아 줄까?” 하며 서러운 감정을 수용해 준다.



신발 고리에 끈을 스스로 끼우려고 애쓰는 영아를 기다려 주며
“천천히 해.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라고 격려한다.



뒤집힌 반원 매트를 건너고 싶어 하는 영아를 위해 교사가 발로 매트를 지지해 준다. 교사는 팔을 벌리고 “아슬아슬, 아슬아슬.” 하고 말하며 영아가 끝까지 잘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로 힘을 합해 솔방울을 운반하는 영아들에게 교사는 “우와~ 영차! 영차!”, “힘내라! 힘내라!” 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격려한다.



놀잇감을 가지지 못해 속상한 또래를 달래려는 영아에게 교사는 “민수가 현이를 잘 도와주는구나. 현이가 고마워하네~ 선생님도 정말 고마워.”라고 칭찬하며 또래 상호작용 시도를 격려한다.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준이의 공놀이

공 던지기를 시도하는 영아에게 귀 기울인 교사는 어떻게 상호작용하였을까?



준이의 놀이에 귀 기울이기

바깥 놀이터에서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자 준이가 다가와 공을 만진다. 다음 날 준이는 또 다른 공을 교사에게 가져와 보여 준다.



실내에서 준이는 공을 잡으려 하다가 한 손으로 잘 안 잡히자 손의 모양과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어 본다. 그리고 굴러가는 공을 바라본다.



교사가 공 던지기 시범을 보이자 준이가 팔을 높이 들어 공을 던져 본다. 다음 공은 두 손으로 잡고 던져 본다. 준이는 공을 던지고 굴러가는 공 바라보기를 반복하며 즐거워한다.





배움 읽기

준이는 실외와 실내에서 공이 보일 때마다 잡아서 만져 보고 던져 보고 굴러가는 공을 보면서 공이라는 친숙한 물체에 관심을 가지고 감각으로 탐색하고 있다(자연탐구). 준이는 한 손으로 공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소근육을 조절해 보고(신체운동·건강) 계속 시도한다. 공을 잡아 던지는 과정에서 팔, 다리, 손 등 대소근육을 조절하고 기본 운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신체가 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한다(신체운동·건강). 준이는 공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땅에 닿아 굴러가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 교사의 미소, 손뼉과 같은 격려와 인정을 받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다(사회관계). 또한 던지는 방식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있다(자연탐구).



배움 지원: 상호작용

바깥 놀이터에서 교사는 공에 대한 흥미를 교사와 나누고 싶어 하는 준이의 의사를 알아차리고(영아의 의사 표현 알아차리기), 준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공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교사의 무릎에 앉아 공을 탐색하도록 허용한다(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하기).

준이가 며칠 동안 공이 보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집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교사는 공에 대한 준이의 흥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영아의 의사 표현 알아차리기). 한 손에 공을 잡고 있지만 바닥에 있는 초록 공을 바라보는 준이의 시선에서 초록 공도 잡고 싶다는 의사를 알아차리고(영아의 의사 표현 알아차리기), “아, 이것도 잡을 거야?” 하고 준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말을 한다(영아에게 적절한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준이가 공 던지기를 시도할 때 교사는 함께 공에 주의를 기울이고(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하기), 공을 던졌을 때는 효능감을 느끼고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소와 손뼉(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하기)으로 격려한다. 준이가 스스로 공 던지기를 반복하며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음을 알고 기다려 주며(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하기), 다양한 방식으로 공 던지기를 시도할 때는 “이번에는 두 손으로 던질 거야?”, “이번에는 멀리 갔네.” 하고 차이와 규칙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해 준다(영아에게 적절한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준이가 부듯해하며 기뻐할 때 교사는 함께 웃음으로 호응하여 긍정적 기분을 공유한다(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하기).

준이와 선생님의 공놀이



4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교사는 영아의 시선에서 공간과 자료의 의미를 바라보고 영아가 놀이하며
배울 수 있도록 도전적이며 안전한 공간과 자료를 풍부하게 지원한다.

1. 영아의 시선으로 공간 바라보기



- 영아의 시선으로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일까? 기관은 영아가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장소이며,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흥미롭고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아는 새롭게 만난 공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도전한다. 때로는 교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느끼며 매 순간 놀이한다.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려면 교사는 먼저 영아가 실내외 공간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깊이 관찰하고 그 의미를 영아의 시선에서 파악해 보아야 한다.

영아의 시선에서 보이는 공간의 모습은?

더 높은 곳까지 볼 수 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많이 만져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보고 싶어요!



천장과 벽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요!

바닥이 가까이에 보여요. 바구니와 놀잇감.
그림책, 사람들의 발이 보여요!

영아의 이동 능력은 누워 있기, 엎드리기, 기어다니기, 서고 걷기 등으로 급격히 변화한다.

영아가 무엇을 보고 만지고 듣는지 이해하려면

교사가 영아의 눈높이를 따라가며 직접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영아는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영아의 시선으로 공간을 보면 영아 움직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영아의 눈에는 우리 반이 어떻게 보일까요?



- 누워 있는 영아는 천장과 벽면,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매달려 있는 놀잇감을 주시하고 예상치 않은 움직임에 놀라거나 흥미를 가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거나, 손을 바둥거리며 잡아 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영아는 천장 위를 집중하여 쳐다본다.



영아는 눈앞에 보이는 교사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는다.

- 엎드리기 시작하는 영아는 바닥을 마주한다. 바닥에 있는 작은 무늬를 만져 보고 입을 가져다 대기도 하며, 손으로 문지르거나 두드려 보기도 한다. 배밀이나 기어가기로 이동성이 생기면서 바닥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교구장이나 가구도 탐색 대상이 된다. 영아는 궁금한 것을 직접 만져 보고 탐색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엎드린 영아는 손을 뻗어 자동차를 밀어 굴려 본다.



기어가던 영아가 책장 앞에 멈추고 눈앞에 보이는 그림책을 집중하여 응시한다.

- 붙잡고 서거나 걷기 시작하는 영아의 세상은 더욱 넓어진다. 영아는 높은 곳의 사물을 만져 보려고 까치발을 하며 매달리거나, 교구장을 잡고 옆으로 이동하며, 손에 닿는 사물을 만져 보고 흔들거나 던져 보기도 한다.



교구장을 붙잡고 일어서서 발끝에 힘을 주며, 위에 있는 물건을 살핀다.



까치발을 하며 높이 있는 동물 그림에 손을 뻗는다.

- 걸어 다니는 영아는 점점 더 넓은 세상을 알아보고 싶어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장소에 호기심을 느끼고 직접 가서 만지고 경험해 보고자 한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를 만나면 넘어가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울타리 사이로 놀잇감을 던지거나 울타리 밖으로 손을 뻗어 나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영아가 울타리 너머의 조리사 선생님과 서로 눈을 맞추며 소통한다.



영아들이 밖에서 놀이하고 있는 유아들을 보려고 창가에 모여 밖을 살핀다.

- 영아의 시선을 따라가며 환경을 살펴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에게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했던 공간이나 자료가 영아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에 영아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아의 시선으로 공간 바라보기는 영아를 위한 지원의 출발이며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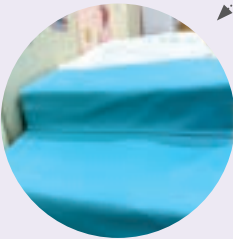
영아의 시선에서는 모든 것이 궁금해요.



안전 울타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영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낮은 교구장은
영아가 들어가
보고 싶은
공간이 된다.



스펀지 계단에 있는
작은 바느질 자국은
영아가 만져서 느낌을
탐색하고 싶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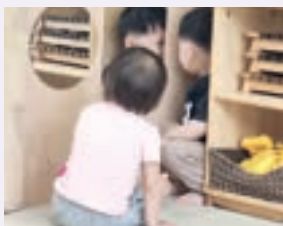


화장실 바닥
안전 매트 사이의 구멍은
영아에게 무언가를
넣어 보고 싶게 한다.

2. 영아중심으로 공간과 자료의 의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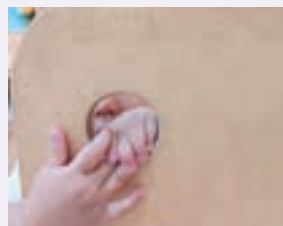
-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구성한 공간에서 영아는 종종 자신만의 시도를 한다. 교사는 영아의 의도에 주목하여 공간의 의미를 찾고 존중한다. 반의 공간을 기저귀 같이 공간이나 개인 사물함 등의 기능으로 구분하거나, 쌓기 놀이나 역할놀이 등의 놀이 유형을 기준으로만 구분하면 영아의 경험을 제한할 수 있다. 교사는 주어진 공간이 영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세밀히 해석하여 융통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



교구장 틈에 몸을 꼭 끼우고 앉아 즐거워한다.



스펀지 터널을 눕혀 자신의 공간을 만든다.



의자에 있는 구멍에 한 손을 넣어 반대편 손을 만져 본다.

- 영아들은 교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놀이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교사는 영아가 자료를 받아들이고 탐색해 나가는 방식을 존중하며 격려한다. 영아는 기능이 정해져 있는 놀이 자료보다 몸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한다. 모래나 나뭇잎 같은 자연물은 영아가 쉽게 옮기거나 변형할 수 있어 흥미로운 놀이 자료가 된다.



영아는 플라스틱 컵을 음료를 담아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뒤집거나 서로 겹치고 자신의 두 발에 끼워 감각을 즐기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소리 튜브를 원통형
블록에 끼워 세워 본다.



감각 놀이 자료를 높이
쌓아 보며 즐거워한다.



반죽 한쪽을 잡고 길게 늘어 본다.



비닐 팩에 든 찰흙을 꼭 눌러
주름진 모양을 살핀다.



나뭇잎을
조심스럽게 만져 본다.



모래 깊숙이 손을 넣어
감각을 즐긴다.

3.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영아의 일상생활 경험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 교사는 영아의 경험이나 이전에 했던 놀이와 관련된 자료를 지원한다.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물과 세상에 호기심을 갖는다. 교사는 영아가 평소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집중하고 있는 놀이는 무엇인지 세밀히 살펴서 이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 교사는 기관에서 영아가 하는 경험뿐 아니라 등·하원 시 부모와의 대화, 알림장의 소통 내용 등을 참고하여 각 영아의 일상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간과 자료를 지원한다.
- 영아가 먹어 본 음식, 방문한 장소 등의 경험에 주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연관되는 자료를 지원해 준다.



콩나물국을 먹어 본 영아의 경험과 연계하여 콩나물 키우기를 한다.



텃밭에서 함께 따 온 오이를 작게 잘라 제공하자 영아가 모양을 찍으며 탐색한다.



가정에서 자주 접하는 잡지나 전단지를 제공하자 영아가 자신이 아는 과자를 가리키며 관심을 가진다.



친구의 상처를 본 영아는 가정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은 악병 놀잇감을 들고 와서 발라 주는 시늉을 한다.



끼적이기를 좋아하는 영아들을 위해 질감이 다양한 종이와 얼굴 사진을 제공한다.



영아가 산책하며 모은 나뭇잎을 가지고 물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연과의 풍부한 만남 지원하기

- 교사는 영아가 자연에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아들은 실외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난다. 앞마당과 놀이터, 공원 등에서 영아는 바람과 온도, 냄새를 느끼며 나무와 풀, 모래 등 다양한 물질을 자연스럽게 접한다. 영아는 자연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탐색하며 배운다. 자연은 영아에게 자유로움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킨다.
- 산책을 나갈 때 교사는 평평한 곳, 오르내림이 있는 곳, 울퉁불퉁한 곳 등 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정된 놀이시설뿐 아니라 물과 모래, 곤충이나 식물 등 영아가 다양한 사물을 만나도록 지원한다.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영아 시기에는 유아차 등을 활용하여 자연과의 풍부한 만남을 지원할 수 있다.



유아차를 타고 나간 영아가
수국에 관심을 보인다.



교사는 영아가 다양한 지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사진 언덕으로 산책길을 정한다.

- 다양한 자연물은 그 자체로 영아에게 훌륭한 놀이 자료가 된다. 흙과 돌, 나뭇잎과 나뭇가지는 영아가 쉽게 만지고 변형을 시도할 수 있는 자연물이다. 정해진 놀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아가 자기 방식으로 놀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한다. 교사는 영아가 자연물을 마음껏 탐색하며 즐거움과 배움을 발견하도록 한다. 영아가 자연물을 모아 볼 수 있는 바구니와 비닐을 제공하는 등 자연물을 활용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아가 산책하며 주워 온 돌멩이를
직접 씻어 볼 수 있게 지원한다.



영아가 나뭇잎과 열매를 모아 볼 수 있도록
바구니나 비닐을 지원한다.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 교사는 영아가 주로 어떠한 움직임을 시도하며 즐기는지 자세히 살펴서 영아가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0~1세는 신체 움직임의 변화가 가장 크고 영아가 수없이 많은 노력과 도전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영아들은 온 힘을 다해 난간을 잡고 일어서려 노력한다. 걷기가 능숙해진 영아들은 점차 할 수 있는 도전의 폭이 넓어진다. 놀이시설에 혼자 힘으로 올라가고자 시도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고, 도구를 사용하면 높이 있는 공을 꺼내기 쉽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영아는 하루하루 도전하면서 점차 능숙하게 움직이고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고 경험한다.



매트에 올라가 창밖을
보고 싶은 영아를 위해 매트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 준다.



영아가 높은 곳에 있는 공을
꺼내 보고 싶어 하자 교사는
말랑한 막대를 제공한다.



균형을 잡고 오르내리기를
즐기는 영아를 위해
안전 평균대를 제공한다.

- 영아는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 도전하며 결국 하나씩 이루어 간다. 교사는 영아의 행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예측되는 위험을 고려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영아의 도전을 지지한다. 또한 영아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위험해 보이는 곳에 폭신한 매트를 깔아 주고, 매트가 미끄러지지 않는지도 수시로 확인한다.

오르내리기부터 숨바꼭질까지!

경사로를 아슬아슬하게 걸어서 내려가기를 즐기는 영아를 본 교사는 영아가 넘어질 것을 걱정한다.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고민하던 교사는 주변의 교구장과 낮은 책상을 치우고 매트를 깔아, 넘어져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영아의 경험은 어떻게 변화할까?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며
경사로를 걸어 내려온다.



경사로에서 몸을 굴러 본다.



경사로를 붙여
낮은 책상에 기어 올라간다.

스펀지 매트를 옮겨서
둘만의 공간을 만든다.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지원해 줌으로써 영아가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놀이하며 풍부한 배움을 경험하고 있다.

영아들의 공간 활용법:
오르내리기부터 숨바꼭질까지



자유로운 시도와 변형 지지하기

- 영아는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대로 변형하기도 한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 중 공간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때 놀이를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이어 가도록 공간을 융통성 있게 변형하게 해 줄 수 있다.
- 익숙한 물질이라도 영아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놀이한다. 교사는 영아가 자유롭게 바꾸며 놀이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료를 지원한다. 영아의 놀이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존중하며 기대하는 표정과 몸짓으로 탐색을 격려한다.



끈끈한 밀가루 반죽을 손에 붙여서 장갑이라며 보여 준다.



휴지를 뭉쳐 소꿉놀이를 한다.



구멍이 뚫린 비닐 주머니를 지원하자
영아가 주머니에 물을 담아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즐긴다.

- 영아는 한 가지 재료만으로도 다양한 변형을 시도한다. 교사는 영아가 자료를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영아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며, 영아가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도록 격려한다.



영아가 상자에 끼적이자 울퉁불퉁한 흔적이 나타난다.
교사는 상자 겉종이를 떼어 더 다양한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아가 아랫부분이 뚫린 상자를 통과한다.
커다란 상자 속으로 몸을 쏙 숨겨 보기도 한다.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과 자료: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아의 새로운 시도를 발견한 교사는 어떻게 귀 기울이고 배움을 읽으며 공간과 자료를 지원해 주었을까?



서은이의 놀이에 귀 기울이기

교구장 배치를 바꾸자 교구장의 뚫린 공간이 드러났다. 교구장에서 자동차를 꺼내던 서은이는 뚫린 공간으로 반대편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몸을 밀어 넣는다. '교구장에 몸을 밀어 넣고 있는 서은이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서은이를 지켜보던 다른 영아들도 교구장에 몸을 넣어 이동하기 시작한다. 교구장을 통과한 영아들이 서로 마주 보며 즐거워한다. 교사는 달라진 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난 영아들의 놀이 모습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배움 읽기

서은이는 공간이 좁은데도 몸을 웅크리고 사이를 통과해 보려 한다. 공간에 맞게 몸을 작게 만들어 이동하려고 팔다리의 힘을 조절하며, 머리를 낮추고 기어가려고 대소근육을 사용하고 있다(신체운동·건강). 영아들은 몸을 구부리거나 손과 발을 뺀 등 평소에 해 보지 않은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며 통과하려고 애쓰며 도전하고 있다. 또래의 시도를 살펴본 다른 영아들도 함께 시도하며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낀다(사회관계).





배움 지원

배움 지원: 공간과 자료 지원하기

교사는 영아가 교구장을 터널 삼아 마음껏 통과해 볼 수 있도록 교구장을 비워 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반대편에 있는 영아와 서로 마주 보며 즐거워하는 영아들에게 더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비닐 커튼을 붙여 준다.

영아들은 비닐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거나, 비닐을 들춰 보는 등 다양하게 탐색한다. 커튼을 통과할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기도 한다.



5

보육과정 평가



교사는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부모 및 동료 교사와 협력하며 성장해 간다.

1. 자율적인 계획과 평가



- 보육과정 평가는 교사가 영아중심 보육과정의 운영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에는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활용에 대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각 기관에서는 고시문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보육 과정을 평가하되, 영아의 놀이와 배움에 대한 기록과 배움 읽기, 평가 및 평가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서로 연계 되고 순환되도록 한다.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에서 보육과정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기

3.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3) 평가

-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평가는 표준보육과정이 영아 중심·놀이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기관과 반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각 기관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협의해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 보육과정 평가는 영아 평가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평가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사는 영아중심 보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 영아 평가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영아에게 귀 기울이고 배움을 읽어 내어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교사는 영아의 배움이 나타나는 놀이,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영아가 가장 즐기고 잘하는 것, 놀이의 특성, 흥미와 관심 등에 주목하여 영아 놀이를 관찰함으로써 영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0~1세 실행자료 2장(영아를 이해하는 평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각 기관과 반의 보육과정이 영아중심으로 운영되는지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고시문의 ‘3.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에 근거하여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하였는지, 영아 주도로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놀이를 적절하게 지원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놀이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고시문

3.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교수·학습

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고시문에 근거한 보육과정 운영 평가

•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놀이 시간을 충분히 지원하는가?

• 영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는가?

• 영아가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 영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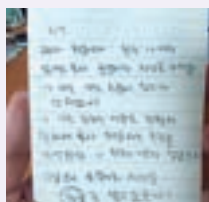
• 영아-영아, 영아-교사, 영아-환경 사이에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지원하는가?

•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지원하는가?

• 개별 영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 영아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지원하는가?

- 평가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영아의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교사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관찰기록, 메모, 놀이 결과물, 작품, 사진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교사는 미리 정해진 평가기준의 달성 정도, 영역별 내용의 경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영아의 일상과 놀이에서 의미 있는 상황을 간단히 메모한다.



영아의 일상과 놀이에서 의미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다.



영아의 끼적이기, 찌기, 붙이기 등의 작품을 수집한다.



영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물을 수집한다.

-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기관이나 반별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일과를 마무리하고 일일 또는 주간 보육일지에 실행 기록과 평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경험에서 일어난 배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적 판단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긴 흐름으로 그동안 작성한 교사의 보육일지, 저널, 관찰기록, 간단한 메모 등을 활용하여 월간 또는 학기 단위로 보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다. 이 과정은 동료 교사와 함께 협의하여 해 나갈 수 있다.
- 평가 결과는 영아를 이해하고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영아 평가의 결과는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 및 목표 등에 비추어 영아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면담할 때나 영아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의 결과는 영아 배움 지원, 이후의 보육과정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 각 기관의 보육과정이 이전보다 더 영아중심·놀이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교사는 새로운 문서 양식을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는 다양한 문서를 활용하여 평가를 작성할 수 있다.
 - 현재 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육일지와 계획안 양식에 ‘배움 읽기’, ‘평가’ 칸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문서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사가 주간이나 일일 계획안을 작성할 때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에 대한 관찰기록과 배움 읽기를 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고 활용하면 된다.
 - 보육일지나 계획안 작성 시 계획과 실행 기록, 평가를 통합한 양식을 사용하면 계획안에 실행과 평가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으므로 ‘놀이 기록과 평가’, ‘지원 계획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다.

배움 읽기와 평가, 계획이 통합된 다양한 문서 예시

4월, 노랑반의 함께 만들어 가는 놀이와 배움

놀이 시간				
차이 그레 본 놀이와 예술	(4월 4월 10일 및 17일을 포함한 4월 4주, 7주)			
인간교육	14	24	34	44
가정과 함께 나누기	(4월 4주, 7주, 10주, 13주, 16주, 19주, 22주, 25주, 28주, 31주)			
노년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4월 4주, 7주, 10주, 13주, 16주, 19주, 22주, 25주, 28주, 31주)			
동아리와 예술 만들기	(4월 4주, 7주, 10주, 13주, 16주, 19주, 22주, 25주, 28주, 31주)			
교육과정 운영 평가	(4월 4주, 7주, 10주, 13주, 16주, 19주, 22주, 25주, 28주, 31주)			
지원 계획	(4월 4주, 7주, 10주, 13주, 16주, 19주, 22주, 25주, 28주, 31주)			

주말반의 놀이하며 배우는 하루

주황반의 농이하여 배우는 하루	
구분	날짜 0000년 0월 0일
관공사관과 공회	출원/하원
	후회 간식/ 형질/오류 간식
	날질
	배면
	상대 농이 (시간)
기류	하일 농이 (시간)
	연한교육
	일일정질과 농이하여 배운 일기
평가 일 농이와 배운 가한 제의	

보라반의 놀이하는 하루

일세	년 월 일 요일			
출발 시각	출석	명	일출 명아	
	결석	명	특이 사항	
매상 계획				
일상생활과 놀이 기록				
배운 일기				
평가 및 지원 계획				

○○판 날짜
오늘의 예상 놀이와 피

○○한 날짜	
오늘의 핵심 놀이와 지원 계획	
놀이 관찰과 기록(관·자율이고 기록하기)	
아이의 배움 찾기	
보육과정 운영 평가 (놀이와 배움 지원 평가)	배움·지원 계획

이슬람의 개혁과 평가

구분		1주	2주
놀이 및 일상 생활	교사가 재설한 놀이		
	영아에 의해 발현된 놀이		
	주요 놀이 자료		
	안전교육		
	☐ 영아의 놀이에 귀 기울여주기 ☐ 영아의 마음을 읽기위해 놀기 ☐ 자발적 계획		

연간 계획과 평가

학기	과목	주요 평가	과목 주요 성취	종합 능력 지표
1학기				
성실성, 노력, 성취				
주요주제 공정 평가				
개인 성취				
학기	과목	주요 평가	과목 주요 성취	종합 능력 지표
2학기				
성실성, 노력, 성취				
주요주제 공정 평가				
개인 성취				

배움 읽기를 반영한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지원 계획

- 초록반 교사는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터널에서 일어나는 놀이에 귀 기울이고 배움 읽기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 공간과 자료 지원, 일과 지원, 놀이 안전 지원 등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하였다. 아래는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날 지원 계획을 세운 예시이다.

반 이름	초록반	날짜	○○○○년 ○월 ○일
시간		예상되는 일과	
7:30~8:30		오전 통합보육	
오전		등원 및 맞이하기, 수유, 이유식, 간식 실내 놀이, 바깥 놀이 기저귀 갈이 및 화장실 가기 (개별 영아에 따라 수유, 낮잠)	
오후		수유, 이유, 점심 식사 이 닦기, 기저귀 갈이 및 화장실 가기 조용한 놀이, 낮잠 및 휴식, 낮잠 정리 수유, 이유식, 간식 실내 놀이 및 바깥 놀이	
※ 개별 영아의 월령, 신체 리듬에 따라 수유, 이유, 기저귀 갈이 ※ 영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일과 변경			
오늘의 예상 놀이와 지원 계획			
- 터널 놀이 - 상자 놀이 - 벽돌 블록 놀이		- 터널 밑에 매트 깔기 - 크기가 다양한 상자 준비하기	
일상생활과 지원 계획			
- 미끄럽지 않게 양말 벗기 - 기분 좋게 기저귀 갈기		- 양말 벗기에 도움 수준을 조절하며 지원하기 - 그림책 보며 기저귀 갈기	
놀이 관찰과 기록(놀이에 귀 기울이고 기록하기)			
우리 반 영아들이 요즘 부쩍 터널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오늘도 대부분의 영아가 터널 놀이를 하였다. 영아들은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터널에 들어가 눕거나 발을 동동거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손에 인형, 공 등 놀이 자료를 들고 들어가 머무는 모습도 보이고 터널 안과 밖에서 놀이하고 있는 영아에게 관심을 보이는 영아도 있었다.			



그중 영우는 터널에 기어 들어가 재빨리 빠져나오는 행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반에서 월령이 가장 낮은 민지는 터널 옆에서 영우가 터널을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에 흥미를 보이며 다가가 영우의 터널 놀이를 지켜보았다. 민지는 영우의 터널 놀이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터널 쪽으로 기울여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웃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영우는 민지와 눈을 마주치며 혼자 터널 놀이를 할 때보다 더 민첩하게 빠져나오려 한다.

영아의 배움 읽기

영아들은 터널 속에 들어가거나 통과하려고 스펀지 계단을 두 발 모아 또는 양발을 교차하며 움직이면서 대소근육을 조절하며 오르내리는(신체운동·건강)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 또한 터널에서 눕기도 하고 놀이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 머물면서 편안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신체운동·건강) 있으며, 터널 밖에서 터널 속 영아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사회관계). 특히 민지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영우를 바라보며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사회관계). 영우가 터널을 통과 하면서 짓는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영우의 표정과 몸짓에 주의를 기울인다(의사소통). 영우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재미있어하며 실내 신체활동을 즐긴다(신체운동·건강). 영아는 스펀지 매트 주변에 깔려 있는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신체운동·건강).

보육과정 운영 평가(놀이와 배움 지원 평가)	배움 지원 계획
영우가 재빨리 터널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영아들과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여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상호작용 지원: 영아가 또래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응원하도록 격려하여 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영아들이 터널 놀이를 즐거워하였으나 점심시간이 되어 종료하자 영아들이 아쉬워했다.	일과 지원: 다음 날에도 터널 놀이에 대한 흥미가 지속된다면 몰입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을 지원하기
터널 안에 있는 또래의 신체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가 많았는데, 터널 속에 있는 영아의 움직임이 충분히 보이지 않아서 서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간과 자료 지원: 투명 터널을 지원하여 또래의 신체 움직임에 대한 관심과 공간 탐색을 지원하기
영아들이 터널 안에서 많이 움직여서 불안정해 보였으며, 터널로 동시에 다가오는 영아가 많아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놀이 안전 지원: 터널을 바닥에 고정하고 터널에 차례 차례 올라가기를 안내하여 안전한 상황에서 마음껏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평가를 반영한 개별 영아 지원 계획

- 분홍반 교사는 영아가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지원하였는지, 개별 영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하도록 지원하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적응 과정부터 4월까지 영아 세 명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교사의 기록, 사진, 일지를 검토하였다.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영아의 지원 계획 및 반의 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이를 월간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아래는 영아 관찰 및 평가를 반영하여 지원 계획을 세운 예시이다.

	영아 관찰 및 평가	보육과정 운영 평가 및 지원 계획
#인영이는 	• 도움받아 앉기, 기기가 나타남. • 새로운 놀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음. • 표정, 소리 등으로 다양한 정서를 능동적으로 표현함. • 낮가림이 적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 수월하게 적응 중임. • 오전 10시, 오후 2시 총 2회 낮잠	• 쿠션을 등에 대 주어 원할 때 앉아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영아들과 낮잠 시간이 다르므로 방해 받지 않고 개별 낮잠을 잘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확보해 줌. • 다양한 정서 표현에 적극 반응해 줌. • 기기를 격려하는 놀이 자료(예: 움직이는 놀이 자료, 굴러가는 자동차 등)를 찾아보고 지원할 계획임. • 웅얼이에 호응해 주면서 차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기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할 계획임.
#정환이는 	• 걷기가 가능함. • 새로운 놀이 자료를 제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함. • 또래가 다가오면 갑자기 하던 놀이를 멈추었다가 또래가 지나가면 놀이를 다시 시작함. • “엄마”, “아빠”, “할미”를 말함. • 4월 초에 중간 입소하여 심심하거나 지루할 때 엄마를 찾으며 불안해함. • 배변 후 기저귀를 가리키며 불편함을 표현함.	• 모양이 다양한 끝차를 주어 걷기를 반영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놀이 시간에 심심하거나 낮잠이 들기 전 지루한 시간에 불안해하므로 함께 놀이하며 놀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고 낮잠 시간에 가족사진을 지원해 줌. • 영아가 한 단어 표현을 할 때 문장으로 다시 읽어줌. • 배변과 관련된 놀이와 책을 지원함. • 친구가 다가올 때 정환이가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자주 관찰하고, 부모님 과도 소통할 계획임. • 교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한 단어를 짧은 문장으로 읽어 주기를 지속할 계획임. • 실제로 화장실을 탐색해 보는 경험으로 확장해 줄 계획임.

#연수는



- 스스로 앉고, 잡고 서기를 함.
- 신체활동을 즐김.
- 새로운 놀이 자료보다 익숙한 놀이 자료로 놀이하는 것을 선호함.
- 새로운 놀이 자료는 친구들이 한참 놀이한 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울거나 웃는 등 정서 표현이 적은 편임.
- 웅얼이 또한 적은 편임.
- 산책에 나가서 만나는 나뭇잎, 돌에 관심을 보이고 꽤 긴 시간 들여다봄.

- 벽면의 바를 이용해 잡고 서기 놀이를 할 수 있게 지원함.
- 새로운 놀이 자료에 접근해 보도록 권유함.
- 표정 그림책을 함께 보며 교사의 다양한 정서 표현을 보여 주었음.
- 관심을 보이는 나뭇잎이나 돌맹이를 반으로 가지고 와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함.
- 다음 달에는 거울 그림책을 추가해서 연수가 책을 읽으며 자신의 얼굴을 관찰할 기회를 줄 계획임.
- 연수의 놀이를 짧고 리듬감 있는 언어로 읽어 줄 계획임.
-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놀이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분홍반 보육과정 운영 평가 및 지원 계획

- 인영이, 정환이, 연수의 운동 능력이나 배움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 영아들은 각자의 속도와 특성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가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고자 한 상호작용, 공간 및 자료 지원 등을 평가한 결과, 영아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놀이를 권유하거나 교사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끄는 경우가 있었다.
-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세 영아의 개별 특성을 더욱 고려하여 다음 달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세 영아에게 각각 적절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고, 개별 영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놀이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세 영아에게 맞는 상호작용, 공간과 자료 지원, 일과 지원 등을 계획하고자 한다.

공간과 자료 지원 평가를 반영한 지원 계획

- 교사는 움직임의 변화가 크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하늘반에서 공간과 자료의 지원에 따라 어떠한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졌는지, 이를 위한 교사의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기록한 보육일지, 관찰기록, 교사의 메모 등을 바탕으로 공간과 자료 지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후 영아의 놀이와 배움 지원 계획을 세워 보았다. 아래는 공간과 자료 지원 평가를 반영하여 영아의 놀이와 배움 지원 계획을 세운 예시이다.

교사의 기록	경사 매트를 시도하지 않던 재진이가 오늘은 또래의 모습을 보고 따라 한다. 여러 번 반복하여 걸어 내려오며 즐거워한다. 이에 근처의 교구장이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살펴보고 놀잇감의 배치를 약간 바꿔 주었다. 재진이는 양손을 뻗고 중심을 잡으려고 발가락에 꼭 힘을 주었다. 또한 넘어질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리 양손을 뻗어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안정적으로 넘어졌다. (2024. 9. 2. 재진이 관찰기록)
	 교구장 뒤의 틈을 벌려 들어간 영아들, 위험함을 알리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뒤 교구장을 원위치해 놓아야 할까? 아니면 놀이 공간으로 허용할까? 교구장을 앞으로 더 당기고 책상을 뒤로 밀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며 지지적으로 상호작용하기 (2024. 9. 10. 교사 메모)
	유학실에서 시아가 공을 하나 가지고 경사 매트로 올라와 굴림. 교사가 굴러온 공을 다시 영아에게 올려 주자 즐거워하며 반복하였음. 내일은 굴러가는 놀잇감으로 플라스틱 자동차, 원기둥 모양 스펀지, 크기가 다른 공을 제공하여 놀이를 지원하고자 함. (2024. 9. 23. 보육일지) 시아는 굴러가는 놀잇감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굴려 보며 즐거워하였음. 이를 보던 다른 영아들도 경사에서 굴리는 놀이를 시작하였음. 놀잇감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다수의 영아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두 손에 꼭 쥐고 다니거나, 굴리며 놀이를 함. 뒤늦게 굴리기 놀이에 참여한 영아들도 많아서 놀이 시간이 부족하여 10분 정도 더 놀이하고 실외로 나감. 내일도 오전 놀이 시간 조정이 필요함. (2024. 9. 24. 보육일지)
평가 및 지원 계획	9월 동안 하늘반 영아들은 다양한 움직임의 시도를 보였다. 특히 경사로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였다. 경사를 내려올 때 조금 위험해 보였으나, 경사로와 교구장의 방향을 바꾸어 안전함을 확보하자 더 많은 영아가 경사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교구장 뒤에 들어가기 등의 새로운 시도도 보였는데,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자 영아는 더 자신감 있게 신체 움직임을 시도했으며, 다양한 놀이가 나타났다. → 영아의 움직임과 공간 변형 시도가 더 도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안전에 민감하게 확인하면서도 영아의 주도적인 공간 변형 시도를 수용하여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영아의 주도적인 시도와 움직임을 더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자 한다. 9월 마지막 주부터 경사로에 공이나 놀잇감을 굴리는 놀이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굴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아의 탐색 속도보다 교사가 더 빨리 반응하여 많은 종류의 자료를 지원하였는데, 이 때문에 영아의 놀이가 오히려 방해받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오전 실내 놀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였으므로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 굴러가는 물체에 대한 영아의 관심을 반영하여 굴러가는 친숙한 물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너무 많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놀이가 교사 주도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하고자 한다. 또한 오전 실내 놀이 시간을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평가를 활용한 협력과 성장



- 교사는 영아 평가와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활용하여 부모, 동료 교사와 협력하여 더욱 전문적 실행력을 갖춘 교사로 성장할 수 있다.
- 교사는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읽어 낸 영아의 배움과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와 공유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후 지원 계획을 함께 논의하여 보육과정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이와 같이 영아의 배움 읽기를 반영한 평가와 계획은 부모의 영아 이해 및 보육과정 계획-실행-평가에 참여를 이끌어 영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이 되도록 한다.
 - 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이 되도록 부모 상담이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보육과정 운영 의견을 검토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기관에서 부모에게 배부하는 계획안은 영아가 경험할 내용을 미리 계획하여 안내하는 방식에서 영아의 실제 놀이, 경험, 배움의 기록과 평가를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 영아 변화 및 보육과정 운영을 부모와 공유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등·하원 시 부모와의 만남에서 그날 하루 영아의 놀이와 배움, 영아의 고유한 특성 및 성장을 공유할 수도 있고 가정통신문, 반 소식지, 전시회, 면담 등을 활용해 개별 영아와 우리 반이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을 나눌 수도 있다.



- 영아의 다양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놀이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부모 정기 면담을 진행해 누적된 영아의 배움과 성장, 영아의 특성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하는 기회를 만든다.



교사는 연 2회 이상 부모와 정기 면담을 진행해 영아의 고유한 특성, 변화 및 성장,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나눈다.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이끈다.



영아중심 보육과정 실행을 담은 전시회를 열어 부모와 공유한다.



반에서 실행하는 놀이에 가족이 개별 또는 집단으로 참여할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여 부모의 적극적인 보육과정 참여를 이끈다.

- 교사가 영아 특성 및 변화에 대한 이해, 보육과정 평가, 지원 계획에 대한 교육적 실천의 질을 높이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동료와 함께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
- 교사는 동료와 함께하는 교직원 협의, 원내·외 장학,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영아의 배움 읽기에 대한 시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보완하고, 교수 실천과 보육과정 실행을 개선할 수 있다.



교직원은 협의를 거쳐 기관의 철학, 영아 평가, 보육과정 운영 평가, 부모와의 소통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육과정 계획을 세운다.



영아 평가, 보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계획안에 반영한다.



바깥 놀이 중 비가 오려 하자 교사가 영아들에게 들어가자고 한다.

교사: 애들아, 비가 올 것 같아. 들어가자.

영아: 아니야.

교사: 비오면 옷이 다 젖어.

교사가 한 영아를 설득하는 틈을 타 몇몇 영아가

현관 옆 개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시간을 더 주었지만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조금했다.

그런데 실컷 놀이한 영아들이 먼저 현관문을 가리키며

“맘마” 하고 말하며 교사의 인솔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교사들은 일과를 마친 후 하루를 돌아보며 대화를 나눈다.



영아들이 점점 정해진 일과를 따르지 않고, 안 들어오려는 친구를 따라 고집을 부려서 걱정이예요.

단지 친구를 따라 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건지, 정말 더 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충분히 놀이하고 나니까 스스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꼭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영아들에게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주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영아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덜 될 것 같고요.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식사 시간이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영아들이 놀이 시간을 길게 사용한 만큼 뒤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걸 아는 것처럼 재빠르게 행동하더라고요.

영아들은 서로를 살피면서 놀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교사 입장에서도 한결 마음이 편하긴 해요.
영아들에게 놀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자율성도 주고요.

이번 기회에 정해진 일과에 맞춰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일과를 더 지체시킬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한 대화를 함으로써 교사들은 영아들이 스스로 놀이 시간을 조절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탐구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자연스레 형성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그 결과, 그저 고집으로 생각했던 영아들의 주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동료 교사와 함께 보육과정 실행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아의 시선으로 시간, 공간, 관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 가고 있다.

보육과정(0~1세) 5개 영역 40개 내용 한눈에 보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신체활동 즐기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더불어 생활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모방하기를 즐긴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0~1세 실행자료



연구책임자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박승주 아주대학교 교수
김성숙 부산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류미향 동아대학교 교수
박유정 서울대학교 교수
서원경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손연주 동명대학교 초빙교수
신미영 국공립김해어린이집 원장
이영신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정혜영 부산대학교 교수
한유진 안산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권윤지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생
김성민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생
박선영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생
최지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이상, 가나다순)

사례제공기관 가베어린이집, 공립구서어린이집, 김해어린이집,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부산대학교직장어린이집, 부산동래한빛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파랑새어린이집, 상록구청어린이집,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해님달님놀이터여수점, 성동구청무지개어린이집, 수원해피아이어린이집, 수정삼성어린이집, 시립풍무푸르지오어린이집, 안산대학교부설석학어린이집, 연지공원푸르지오어린이집, 울고운어린이집, 일광이지더원1차오션포레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 진해사랑별어린이집, 창원법원어린이집, 창원시립용지어린이집, 천안서북경찰서어린이집, 초량범양레우스어린이집, 코녕정밀소재어린이집, 평택꼬마아띠어린이집, 평택남부경찰서어린이집

(이상, 가나다순)

총괄기획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배윤진 연구위원, 김지현 연구위원, 김지원 부연구위원, 김혜진 전문연구원, 최윤경 전문연구원, 김희수 전문연구원, 이정은 연구원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협력관 문복진 교육연구관, 이해나 교육연구사, 이혜리 주무관 (이상, 교육부)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발행처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디자인	(주)유월애디자인(전화 02-859-2278)
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전화 02-2279-6760)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53-01
ISBN 979-11-6865-110-4 94370



0~1세 실행자료

